

[자료해설]

## 예그린악단의 &lt;꽃님이 꽃님이 꽃님이&gt; 해제\*

최승연\*\*

1961년에 창단된 예그린악단은 ‘뮤지컬의 토착화’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 창작뮤지컬을 시도했던 민간극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 예그린악단은 5.16 군사정변의 산물이었으며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던 북한과의 대결의식, 즉 정치적 목적에 긴박되어 있던 극단이었다. 1973년 장충동에 국립극장이 신축 개관하면서, 예그린악단이 문공부 산하에서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이관될 때까지 거듭했던 총 6번에 걸친 이합집산은 정치권에 만들어져 있던 후원회의 부침에 따라 함께 결정되었던 극단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록에 수록된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이후 <꽃님이>) 공연대본은 6번의 이합집산 중 ‘2차 예그린(1966~1968)’ 시절에 창작된 것이다. 박용구를 단장으로 했던 2차 예그린은 2년간 총 세 편의 작품

을 공연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창작뮤지컬의 시작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살짜기 읍서예>(1966년 10월 26일~29일)이다. <꽃님이>는 전작인 <살짜기 읍서예>의 흥행 성공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1967년 11월 19일~26일까지 시민회관에서 공연되었다. 이후 2차 예그린은 <대춘향전>(1968년 2월 23일~3월 3일)을 공연함으로써, 2차 예그린 시기에 공연된 세 작품은 다른 시기의 레퍼토리보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물로서 역사화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꽃님이>가 2차 예그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그린악단의 전체 레퍼토리에서도 돌출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예그린악단의 전체 레퍼토리는 버라이어티 공연물, 고전의 현대화, 역사 뮤지컬, 친정 부적 목적극 등의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꽃님이>는 1964년 방송된 임희재의 KBS TV 주간단막극 <16세 신부>를 원작으로 하는 ‘동시대성’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위의 계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차 예그린은 임희재의 <16세 신부>를 원작으로 선택한 이유로 ‘향토적 분위기와 ‘희극성’을 들었다. 향토적 분위기는 ‘한국적 뮤지컬’을 지향하는 예그린악단의 존재론적 목적에 부합했고 희극성은 ‘뮤지컬 코미디’로서 탄생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희곡과 방송극 작가로 활동하던 박만규는 <16세 신부>의 촬영 스튜디오에서 작품이 녹화되던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2차 예그린의 2회 작품으로 추천했다. 박만규는 임영웅과 함께 계간지 『연극』에 함께 관여하던 인연으로 예그린악단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현찬, 조동화, 이진영 등 예그린 악단 자문위원들이 모여 있던 금수장 호텔 회의에서 <16세 신부>의 뮤지컬화는 결정되었고, 이후 임희재에게 뮤지컬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예그린 악단은 원작자에게 직접 각색을 의뢰했다.<sup>1)</sup> 그러나 임희재

1) 박만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임희재는 ‘연속극 형식의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를 만든 <아씨>(TBC TV의 일일드라마, 1970~1971)를 집필 중이었다고 한다. 임희재가 뮤지컬 각색을 고사한 이유는 그에게 뮤지컬이 생소한 장르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공연대본은 2008년 11월 4일 이 작품의 공동 작가(박만규, 황운현 공동 창작) 중 한 명인 박만규로부터 필자가 구독한 것이다. 대본의 126~127쪽 대사에 가해진 수정은 시골사람(호남지방)이라는 배우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사가 전면적으로 사투리로 수정된 것이다. 이 해제의 내용은 최승연의 「‘한국적인 것’의 구상과 재현의 방식-예그린악단의 뮤지컬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를 중심으로-」(『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1호, 2009)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강사

가 이를 고사하자 에그린악단은 단막극으로 되어 있던 짧은 원작을 뮤지컬로 확장하기 위해 후반부 각색을 임희재에게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했다. 박만규와 에그린악단 기획홍보실장 황운현(필명 황성일)은 원작에 없던 2부를 완전히 새로 써서 각색된 1부와 결합시켜 뮤지컬 <꽃님이>를 완성시켰다. 배우와 스텝진은 <살짜기 읍서예> 때와 거의 동일했다. 연출 임영웅, 작곡 최창권, 안무 임성남과 한익평, 합창지도는 소위 '에그린조'를 창안한 나영수가 담당했고 주인공 꽃님이역은 소프라노 문혜란, 배우역은 후라이보이 광규석, 그리고 시어머니역은 강부자가 맡았다.<sup>2)</sup> 임희재의 TV 드라마 <16세 신부>는 뮤지컬 <꽃님이>로 제작된 이후 영화 <철부지 아씨>의 원작으로도 활용되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 문희(꽃님이역)와 신영균(석순역.뮤지컬의 바우에 해당하는 인물)을 위시하여 김희갑, 황정순, 한은진, 김성옥, 아역배우 김정훈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로 재탄생된 것이다.(각본 임희재, 감독 김기풍 장일호, 촬영 김재영, 1968년 3월 14일 개봉.) 이 영화는 뮤지컬 <꽃님이>의 새로 쓰인 2막과 원작 전체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960년대 TV 드라마 대본이 대부분 유실되어 뮤지컬의 본래 원작을 찾기 어렵지만 다행히 당시에 방송극과 영화가 빈번히 서사를 공유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는 무리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철부지 아씨>와 <꽃님이>는 전반부 대부분의 서사를 공유한다. 전반부의 두 텍스트는 모두 결혼을 “비단옷 입구 원삼 입구 족두리 쓰구 분바르”는 낭만적인 것으로 상상하던 꽃님이가 결혼 이후의 시집살이와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곤해 하며 철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에피소드들을 희극적으로 과잉해 놓고 있다. 가령, 꽃님은 남편과의 공포스러운

<아씨> 집필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2) 안무를 맡은 임성남과 한익평은 각자의 특징을 살려 1부와 2부를 나누어 담당했다. 1부는 임성남이 맡았으며, 2부의 현대적 안무, 특히 카바레 장면은 한익평이 맡았다.

잠자리를 줄곧 거부하며 밤마다 시아버지에게 옛날이야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석순에게 새참을 갖다 주다가 감나무에 올라가기도 하며 시아버지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의 부채를 툼타 떡을 해 먹는 인물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꽃님은 전통사회가 ‘며느라’라는 존재에게 부여한 고정관념을 간단히 뛰어넘는다. 그녀의 무기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꽃님의 성숙한 육체와 비사회화된 자아 사이의 불균형성, 이러한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어이 없는’ 시선들은 전반부의 희극적 과잉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두 텍스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뮤지컬이 삼각관계에 근거한 ‘장애’가 많은 연애이야기라는 한국적 멜로드라마에서 탈주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전반부에서 꽃님과 남편 석순, 그리고 연적 장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삼각관계를 뮤지컬이 삭제함으로써 시작된다. <철부지 아씨>에서는 일본 순사와 공모한 연적 장수의 계략 아래 석순이 강제로 징용을 가게 되고, 이에 따라 꽃님이가 장수를 따라 반강제적으로 서울로 가게 된다. 철부지였던 꽃님이가 남편의 부채를 견디며 ‘시댁귀산’이 되었지만 도리 상 장수와 재혼하기를 바라는 시부모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님은 신파의 여주인공처럼 복종하면서도 석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속 원을 놓지 못해 서울에 도착해서도 흑흑거리며 운다. 꽃님은 결국 장수에게서 탈출하여 다시 시골로 오지만, 징용에서 돌아온 석순은 정작 꽃님의 ‘정절을 의심하며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석순은 양장을 한 서울여자 미옥을 데리고 와서 꽃님을 시골여자 콤플렉스에 빠지게 하는 등, 오해로 점철된 ‘순결 이데올로기’를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그러나 꽃님이가 정절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장수의 증언으로 석순과 꽃님은 결국 해피엔딩을 맞는다. 이처럼 <철부지 아씨>는 꽃님의 ‘현모양처’로의 극단적인 변화를 통해 ‘정절과 가족의 수호’가 작품의 절대적인 도덕적 명제임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꽃님의 ‘모성’은 가부장제의 도덕률을

감내하게 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낮익은 멜로드라마적 관습은 대중성을 선취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달리 뮤지컬 <꽃님이>는 삭제된 삼각관계와 더불어 꽃님의 서울행을 자발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원작에서 멀리 달아난다. 꽃님이에게 서울은 고된 시집살이의 피난처이자 ‘꿈을 찾는 공간이다. 뮤지컬은, 뮤지컬에만 존재하는 꽃님이 언니 달님이가 ‘가출소녀’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반부에 미리 노출시켜서 새로 삽입된 후반부의 사건을 예고한다. 가면을 쓴 채 지신밟기 행렬에 들어가 서울로 탈출하는 꽃님은 시집살이를 겪는 시골의 며느리에서 근사한 정장을 입고 큰 회사에 출근하는 오피스걸을 꿈꾸며 서울의 언니에게로 간다. 서울의 카바레 댄서로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던 달님은 고향에다 큰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짓정보를 흘렸고, 이는 결국 16세의 유부녀 꽃님이마저 가출소녀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의 후반부는 도시로 간 꽃님이가 겪는 서울생활기를 초점화한다. 그러나 꽃님의 서울생활은 그녀의 진정한 꿈이 서울에 있지 않고, 오히려 꽃님이가 시골의 정서와 인정에 바탕을 둔 ‘건전한 국민’임을 발견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육체를 팔아 도시의 ‘공공의 여성’이 되었던 언니를 다시 고향-시골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되돌린 꽃님은 작품 말미에 ‘칭송되기까지 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모양처로 변모하는 <철부지 아씨>의 꽃님과 달리, 뮤지컬의 꽃님은 끝까지 호기심 많고 천진한 소녀로 남는다. 서울로 자신을 찾아온 남편에게 순종하고, 고향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베풀 줄 알며,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나설 줄 아는 꽃님이라는 여성은 1960년대 서울의 모더니티와 충돌한다. 따라서 뮤지컬 <꽃님이>는 정서적이고 가족적인 공간-시골에 거주하는 한 어린 여성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도시민들을 교정하는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견 돌출적인 것으로 보이는 <꽃님이>는

‘한국적인 것’을 향한 담론에 정향되어 있던 에그린악단의 제작 목적과 공명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決)

에그린 뮤지컬 第二回 作品

#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劇本 黃 燾  
作曲 崔 彰 燾

任 熙 宰 原 依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색칠이 여자

## 에 그 린

### 第一回 (두피 신글)

- 第 1 場 作業場과 심리가 있는 마을 어귀 (3)
  - 第 2 場 바우비 집 앞마당 (19)
  - 第 3 場 ~~꽃님이네 집 사립문 앞~~ (28)
  - 第 4 場 ~~꽃님이네 집 안채~~ (41)
  - 第 5 場 ~~꽃님이네 집 대문~~ (53)
  - 第 6 場 ~~꽃님이네 집 대문 앞~~ (69)
- 분장 **합화** **합창** **특가**
- ### 第二回 (서클)
- 第 7 場 서울역 構內 (81)
  - 第 8 場 잠실 아파트 (93)
  - 第 9 場 다시 잠실 아파트 (105)
  - 第 10 場 八角亭 (117)
  - 第 11 場 카마레. 드라마 ~~장동민~~ (133)
  - 第 12 場 (다시 서클) 作業場과 심리가 있는 마을 어귀 (143)

타이그 킹  
음악가 박지현

### 뮤지컬 시놉시스

#### 第 1 場

- ① 번안을 보니 混 合 ——— (3)
- ② 통리령 (A) 오델로, 강수희 때 男 獨 混 合 - (6)
- ③ 통리령 (B) 오목관, 손봉이 때 女 獨 混 合 - (8)
- ④ 나는 꽃님이 꽃님 文 獨 — (9)
- ⑤ 이라리리 영육소 바우 男 獨 — (12)
- ⑥ 장영돈 이 장일이 장사 안구네 混 合 — (17)

#### 第 2 場 ————— (19)

- ⑦ 산골짜기에서 아저씨를 만나다 웃음은 사람들, 나무꾼 混 合 — (19)
- ⑧ 이라리리 영육소 바우 男 獨 — (20)
- ⑨ 야단쳤오 바우 어머니 女 獨 — (23)
- ⑩ 갈려어? 안갈려어? 바우 아저씨, 어머니 二重 獨 (25)
- ⑪ 바우는 풍아씨 바우 사람들 混 合 — (26)

#### 第 3 場 ————— (28)

- ⑫ 합사시오 합 합관들 男 聲 四 重 獨 — (28)

- ⑬ 합사시오 합 합관들 ... 男 聲 四 重 獨 — (32)
- ⑭ 합 들어 커신과 합관들 손봉이 때 꽃님 — (36)
- ⑮ 꽃님이 너니, 마흔 사람들 — (37)
- ⑯ ... 男 女 混 聲 — (4)

- ⑰ 사름도 없었건만 꽃님이 너니 평양 ... 文 聲 混 聲 — (38)

#### 第 4 場 ————— (41)

- ⑱ 신랑을 만나다 웃음은 사람들 混 聲 四 重 獨 (41)
- ⑲ 다들 이 바우 混 聲 四 重 獨 — (44)
- ⑳ 꽃님이 너니 바우 混 聲 — (47)
- ㉑ 그라바 난 참 꽃님 混 聲 — (47)
- ㉒ 저 팔음 보소 장미, 사람들 混 聲 — (50)

#### 第 5 場 ————— (53)

- ㉓ 시집살이 법칙이니 꽃님 女 獨 — (53)
- ㉔ 여짜 보았니 꽃님 이라리 ... 二 重 獨 — (58)
- ㉕ 첫사랑을 ... 混 聲 — (60)
- ㉖ 요리학을 만들자 꽃님, 손봉, 팔고만, 오목관, 지은 ... 女 聲 5 重 獨 — (64)

第 6 場 ----- (69)

25) 활라시 노래 마을 어린이들 ---- 混 ----- (69)

26) 서름은 오지점속 꽃님 ..... 女 独 ----- (72)

27) 꽃神 춤기 노래 마을 사람들 ... 混 ----- (75)

28)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삼수, 활악, 오성, 칠현, 순봉  
오복은, 달고장 서우, 8호명 ----- (78)

第 7 場 ----- (81)

29) 서울, 서울 歌에 동인 群衆들 ... 混 ----- (82)

30) 밤을 찾아왔건대 꽃님이 ..... 女 独 ----- (86)

31) 人生은 쓰러기 舞은 歌夫 ----- 男 独 ----- (87)

32) 그외도 어드먼가 꽃님이와 歌夫 混二重 ----- (90)

33) 人生은 쓰러기 舞은 歌夫 ----- 男 独 ----- (92)

第 8 場 ----- (93)

34) 서름은 마음 달님의 그편자들 女 合 ----- (95)

35) 활라시 노래 달님, 리리, 永植 混四重 ----- (98)

36) 꿈을 찾아서 꽃님, 달님, 리리, 永植 女 独 混重 ----- (103)

第 9 場 ----- (105)

37) 리리, 리리, 리리 市民들 ... 混 ----- (105)

38) 멋쟁이 아가씨 꽃님이 ... 女 独 ----- (110)

第 10 場 ----- (111)

39) 빙글 돌을 감을 든다 서울 근방자들 ... 混 合 ----- (111)

40) 저급품 무얼 할까 꽃님 ... 女 独 ----- (111)

41) 버락의 부신랑 꽃님이 舞우 ... 混 合 ----- (120)

第 11 場 ----- (133)

42) 이수야미 인생살이 삼남 카나레 연신들 ... 女 合 ----- (133)

43) 돈 돈 돈 돈 카라코의 一 舞 ... 混 合 ----- (140)

44) 고향을 등지고 카라코의 一 舞 ... 混 合 ----- (141)

第 12 場 ----- (143)

45) 꽃님이, 꽃님이 서울가을 사람들 ... 混 合 ----- (143)

46) 꽃님이는 조롱꽃 연봉 ... 混 合 ----- (148)

第 1 部

舍場을 통째서 絞絞한 色澤의  
 초가집웅의 絞을 살린 絞은 絞이  
 拮据的으로 絞成된 시골 風情으로  
 奇蹟을 삼는다. 絞된 絞은 絞과  
 와 콘트라스트를 이루며 絞류들을  
 하니 拮据한 色彩感을 나타낸다.

第一場

해남地方의 어느 山村이다.

마을 이키쯤.

잡지며 밭지락이며 갖가지 동나무를 만드는 作業場  
장수, 활락이, 오갱이, 칠칠이 등등 마을 젊은이들이 作業을 하고 있다.

한쪽 옆에 下手쪽으로 샘터.

순봉이 팔고관이 서운이 등등 마을 석씨들이 돌  
동이에 샘물을 길어 넣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한다.

희창환 불날씨다.

마침 잡지를 파는 장수네 때와 빨래를 하는 순  
봉이네 때와 노래와 춤으로 어울린다.

노래 1. 연산을 보니

장수네 때 연산을 보니 아름아미삼삼  
 어허야 어허야  
 어서파자 활지가

바람을 술 술나두  
 밭키살살 썩어나두  
 심리썩썩 으리나두  
 나복구 나복구 날갯구나  
 살기복구 갑나두 라를새켜 조롱조롱  
 밭나두 알치식 액동대롱  
 버러이 합지야 어서 파자 합지야

-이때- 돌보 오목단이 불동이를 먹고  
 노동에서 등장한다.  
 오목단을 본 오랭이녀석이 심경게 나  
 서며

오 랭 (레시라레브로) 저 음음쟁이 똥보  
 오목단이 팔이여, 웃임가 어고 제 아  
 랫 아를 천천이를 순수에 슬며 꼬어  
 다가 같이 실자면서 뉘구리 부복 썩  
 었다며?

민 앙 하루하 .....

김수네래 어러야 어러야 어서 파자 합지야  
 오목오목 합지야 나지나지나지 어러야  
 각시네 합지로구나

오 목. (레시) 빛이 뭐짜? 이 오목단이를  
 놀리고 오살할것들이 성함을 인양가?

순봉이네래 알갯더라 썩갯더라  
 시랑남자를 알갯더라  
 마실을 가도 눈짓을 하고  
 팔래를 차도 엮구리 툭툭  
 천을 천사발 퍼먹고 속이나 차리라지.

오 목. (레시) 옛제 - 짚신으로 꺾밧아 놓은 쌍둥을  
 편 오랭이녀석말이여임? 합지막도 제대로  
 못다는 주제에 차따 밧이던 밧따  
 오졸까지 썩개여!

민 동 호호호.....

오 앙 빛이 어때?

-6-

오 목 죽것이 취하면 취할 것이어? 맛 좀  
볼람가?

오목단이 종종한 배로 고단 오쟁이네  
석을 깎하니 쉼겨 버린다.  
복원의 나가 임들어 버리는 오쟁이.

민 동 헛하하...

오 목 (복을 술술 간지켜) 헛동산에 가던  
학살 증천 무름나무 할가운데 계수나  
무 스무나무 커인나무 나무도 많지만  
여기는 취한노르 통이 이지가지로 많  
다나?

오 함 (술술 헛설음 치며)  
미엇! 증보 오목단이 니 배통이  
나무통 얹은 건 알고있나?

민 동 하하! ...  
노래 2. 통타림 (A)

-7-

오 쟁이 술로 (나중에 장수내돼 함창)

신통 밭통  
노빔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틀립통  
쟁얼이통 원산교물통  
웃집 노즘통이 아래킵 뚱뚱  
우리집 절구통 슬킵뜨물통  
장님목통 돼지오즘통  
수미대나무발통 얼근뚱상통  
목수먹통 웃생긴 밥통  
큰애기 컷통 주정꾼슬통  
뚱뚱놈 심통 설은사람애통  
이통지통 우리누나 시집살대  
죽수통 고목단이 배통  
하하 ...

오 목 헛배 참달로 시시하게들 놀고 자빠라  
졌네 으덜 그 씨원함은 연갈승씨로  
안은 통도 통이지단 이런 통도 있다  
는걸 알아두어.

노래 3. 통타령 (B)

오목이 솔로 (나중에 순름이내 개 함창)

통타집 오색이가

통감을 끼고

통성편지를 찢았다가

달머뚱으로

석관통을 얻어왔고

음음 뚝뚝 하야

꿈이 뚝뚝 잤다며?

권구통 위에 가 서 있다가

분통을 쥐집어 쓰고

오줌통에 빠졌나니? 호호호...

민 실 아 이 락것들아! 썩썩 락락 해 찢치

달구 싸게 싸게 일들 못하것나?

할 고 아니 그런디? 저기 꽃님이가 오잖어?

장 수 워디 햇레 주슬같은 곡색 저고리에 휘날

빛 푸른 치마를 입고 앙?

할 작 음매, 마강극장 아주함전학 같이 오  
는다!

꽃님이 줄동이를 입고 노래부르다 노  
루루의시 나타간다.

노래 4. 나는 꽃님이

나는 꽃님이예요 꽃가루처럼

마함과 소근뻬뻬 웃음을 날려주는

나는 꽃님이예요 꽃가루처럼

어디로 날아가나 햇살을 안고가는

나는 꽃님이예요 꽃가루처럼

놀이지면 땅안이 내뿜을 약속하는

나는 꽃님이예요 어디든 마음속엔

많은 꿈을 심어주는 꽃가루예요

오 장 아니 그런디? 이제 무슨 심어줄구?

장 수 꽃님이 너 랑수 티셔도 씨구 안했나?

~//~

관 고 워디 ..... 기어 본 말했어  
 꽃 남 추후 ..... 냄새 좋지려우? 잉?  
 순 봉 음아! 꽃님이가 시집간다드니만  
 그때 문 말렸구만!  
 잠 수 뜻이? 꽃님이가 시집을 가?  
 할 각 아, 어떤걸 나가 댁살인디? 벌써 시  
 집을 간디냐?  
 꽃 남 추후 ..... 말하고도 떠섰이나 먹었는데  
 못가려우?  
 서 순 그런디 대체 는 신랑이 누구라냐?  
 꽃 남 옷마를 사는 바우 지려우!  
 질 질 바우? 히히히.....  
 잠 수 그 품결은 미련통이 말어?  
 꽃 남 와? (때리는 시종들 쫓다)  
 상 수 옛해? 옛날아 리 같은게 그대두 즈 신랑  
 들 품이라구 하님께 심은 제미어 잉?

~//~

린 동 작화.....  
 오 북 그런디, 꽃님이 더 시집가면 처명제  
 되는증이나 말구 문헌을 환거나?  
 꽃 남 처! 글면 누가 도를중 안암가?  
 질 질 뭐미? 말어? 워디 글면 색씨 재우  
 식건 좀 들어오자!  
 꽃 남 취마감 다섯개, 저고리감 밑금개,  
 담주 이불 두개, 비선 아홉개,  
 띠 먹구 술 먹구 원삼 입구 쪽도리  
 쓰구, 문바르구, 언저 띄구, 문지 띄구,  
 신랑한테 팔려구!  
 질 질 아, 감두끼미 멍끼로 신랑한테 남쪽  
 절단 하건 단종 안암가?  
 꽃 남 글면 도 뭐가 있어?  
 질 질 아, 첫날 밤부러 밤으로 지루는 공사  
 가 오죽이나 고된중 안암가?  
 차라리 함지박이라던 닭기나 하지!

~22~

꽃님 이해해. 히히.....  
 밤으로 치루는 공사? ....  
 아니 공사가 꽃이달가?

일동 와라하! ....  
 오징 야! 저기 미우가 오잖아?  
 일동 거에 데고 두엇인가 소근거리다  
 모두 숨어 떠된다. 약간 어리둥절  
 해진 꽃님이고 고만 따라 숨는다.  
 바우가 노래창의 소를 듣고 나온다.  
 소방들 소리 들리고  
 소음에는 혼수급이 산땀에처럼 실려있  
 다.  
 노래소 이라 이라 일복소  
 바우 이라 이라 일복소야  
 이서가자 일복소야

~23~

꽃님 잠가드나  
 내 가슴에 불이 붙네  
 흔들 빛에 붙은 불은  
 소방자가 꺼준다지만  
 이내 가슴에 붙은 불은  
 꽃님이가 저를잡가 하하하  
 주자밤낮 속다든구나  
 이라 - 이라 - 이라 - 이라 -  
 순봉이데패가 꽃님을 숨은 곳에서  
 밀쳐낸다.

꽃님 바우야  
 바우 으매 꽃님이 아니며? 히히히.....  
 그런데 바우가 뭐야?  
 나도 인자 잠가가면 버섯한 참이로비  
 죄아들 잠잠이단 말지! 바우가 뭐  
 야 바우가?  
 꽃님 클면 잠잠아!

~18~

바 우 히히히... 뭐때 그라?

꽃 남 바우... 아니 장갑아 그런디 뭐더 갖  
다 오는거여?

바 우 나 물어 봤데... 장에 갔다와!

꽃 남 장에? 오매! 별거 별거 다 샀구  
나 입?

바 우 해어어!  
이게 동땀 니꺼요!  
이런 치마감, 이런 니 저고리감  
아주 비싼거여!  
그라구 이거 덩래, 이런 곡수,  
참 너 곡수 좋아하냐?

꽃 남 곡수?

바 우 그리어 니가 나한테 시집 오는 날  
은 곡수를 뭐든거여!

꽃 남 난 곡수보듬 뭐이 더 좋은디!

~19~

바 우 뭐도 무지하게 할텐디 치!

꽃 남 무슨 뭐?

바 우 너희구 나희구 찰삭 붙는 참살떡!

꽃 남 오매! 오진플 이거 모두 나플려  
구 산거여?

바 우 붙매 그럴적두 이프우신 이쁘지?

꽃 남 뭐디 환런 신어올카? (신는다)

꽃 남 오매, 뭐어던 이렇게 딱 갖는다?

바 우 (술술 꽃남이려 종다리를 단지면서)  
맛지? 푸앗지? 입? 히히히...

꽃 남 오매! 뭐어금 자꾸만 종다리를 단진  
당가?  
폼플스럽게! 참말로 정그리쳐 죽겠  
네!

~16~

갔다 이 손 뚫어줄 것이?

바 우 해해 고깃 잡!

니가 이쁘니 제 그다지!

아, 이때 더듬는 것두 새금 붙는담가?

꽃 님 참말로? 내가 잡갈로 이쁘배?

바 우 고령

꽃 님 귀리카 젤로 이쁘?

바 우 디 이쁘! 난 니가 이 세상에서 제  
일 이쁘! (손짓)

하늘 만름! 바다 간름! 태산

간름

꽃 동 와히하!.....

~17~

숨어 있던 잠수네때와 손들이네때가

나라나며 놀러간다.

바우, 꽃님이 수집에서 땡소니를 친다.

노래 6. 잠생원네 잠압이 잠가  
간다네

잠수네와 손들이네때

하하하..... 호호호.....

잠생원네 잠압이 잠가 간다네

인사모란대 조람 말하고 잠가 간다네

꽃같은 꽃님은 시집은끼네

먼지찍구 큰지찍구 쪽도리쓰고 시집간다네

몸 女 얼시구 졸다 지화자 좋아

잠생원네 잠압이 잠가 간다고

졸람알라고 우쥘 지리고

산림도 산뵈는 꽃남이네

꽃기야 한라고 좋아라치만

아고 애야 말도마라

꽃남아 말도 마라

고. . . . .

시집사리 더 맵단다

~

第二場

바우비집 원미광

바우 씨며니가 마당에서 봄나물들을 쟁기고 있다

바우비 집 앞을 훑보는 사람을 나무꾼들이 노래를  
하며 지나간다. 구심전 노래가 처평하라고 구슬프  
다.

노래 ? 산골짜기의 늑미지 푸는때

훑보는 사람을 나무꾼들

산골짜기 마다 하얗게 빛인 눈은

다땀한 봄벌이 녹여주고

침침산중 고드름은

흔흔한 바람이 들서내건만

우리네 가슴에 사모친 수심은

그애누가 들서나 즐라

산마루 마다 언초록 새색트고

시집사리 푸르며더 볼처럼 탄다는데

산꽃아 해메는 길

120~

종소리 콩마름서 들고가는 소령새야  
노란이 나뭇잎 처

이제 가슴 수심을 열어줄까?

노력 노력 노력새야

~~이제 가슴 수심을 열어줄까?~~  
슬리우

현상은 ~~이~~상은 고개마루 우방구비

희리한 감히안지 희리한 감히안지

귀를이여 바우자 소를 들로 들어온다

듣수풀 각면라거 상보로 돌아오는 별이다

노래 8 이라이라 일복 소

바 우 이라이라 일복 소야  
어서가지 일복 소야  
뒤편치면 잠가드나  
꽃님이 기다린다

바 우 엄니. 해해 .....

어 머 니 인자 오네.

바 우 아버지 취디 갔지라우?

121~

어 머 니 니 심방 드배 하신다

바 우 우리 꽃님이하구 있을 밤 팔어?

어 머 니 그랴.

바 우 헛헛해 .....

어 머 니 그럭 풍와서 입이 뻐지박만 해가지구.

바 우 그러면 엄니는 안종라우! 해해 .....

어 머 니 적체 내 속지나? 니가 페리구 팔  
나 샅지!

바 우 엄니도 시집올때 좋았어?

어 머 니 좋은 재요구멍이 좋아 ... 산 눈물만  
쏟았어! (안을 흘렸)

조 아버지

아버지 (나온다) 엄?

어 머 니 바우가 잠뵈 왔어라우!

아버지 그때 적은대루 잘 사왔나?

바 우 야!

아버지 꽃종이두 사오구?

바 우 엄! 이거 팔여라우!

아버지 음. 됐다!

~22~

( 어머니가 소예석 혼수감등을 내려놓고  
행기기 시작한다 )

바 우     그런지 아버지! 나 인자 몇람자면 강기  
       듣다?

어머니    여섯밤 가면 된디기 알았나? 아. 알  
       것나?

바 우     ( 여섯 손가락을 만들어 ) 그것 좀  
       취해 주락 안구말가? 속이 최서 못  
       살이과우!

어머니    아니 그런디 대관결 니가 정신이 있  
       나?  
       혼수를 행기던 어머니가 잠잠 놀란다.  
       직어 주대로 안사오고 마냥 꽃님이  
       즐것만 사왔다.

바 우     뭐 재?

어머니    사오리는건 안사오구 죄다 제 쪽서  
       불건만 사왔으니 말이어.  
       대관결 니가 정신이 있는 비석이란  
       말여?

~23~

아 버 지    아? 뭇이 뭇에?

~~노래가 아단것오~~

어머니    이것 참 아단것오

       이것 좀 보랑게

       이건 지석씨 치마감

       이건 지석씨 저고리감

       과외미 인두

       홍실 정실 오색당실

       바늘 가위

       경대 꽃상자 .....

       어이구며 큰일것오 ~~사단것오~~

       이 노릇을 어쩔것여

       여보 영감 이것 좀 보시요

       글메 은도끼 가장 사왔랑게

아 버 지    은도끼는 취째 사왔람가?

어머니    ~~듣은 들릴은 있어~~

~~듣은 들릴은 있어~~ 듣은 들릴은 있어

~~듣은 들릴은 있어~~

~~듣은 들릴은 있어~~

색채 라지 근에다가

은도끼를 세웠으면

첫아들을 낳는 리흐

아버지 첫아들이구 뭐구 지금 가서 왕장 혼

인을 몰르구 달아가지!

바 우 (혼인을 몰르키와 아버지 뒤위를 밟

씩 안으며) 아버지 형!

아버지 아니 뭐째 부들구 이 지랄이라? 늑이 말

하게 이틀리나 갖개 더야 ~~몰르키와 아버지 뒤위를 밟~~ ~~아니 뭐째 부들구 이 지랄이라?~~ ~~늑이 말~~

바 우 참말투 ~~참말투~~ 혼인을 몰르려 가라우?

아버지 ~~뭐야!~~ 아 이서 늑이 묻는것나?

바 우 형 아버지 삼고려계! 형

가지! 마라우!

어머니 아니? 저저 저이 아버지 허리를 부

들구 느리지면 어쩔 것여?

아버지 이 녀석야 아구구 - 어구 아구

허리아?

어머니 아니 이놈야 령 못볼것나?

안볼려?

바 우 형! 아버지! 들르려 갈티여?

안갈티여?

노리 ~~가~~ 갈티여? 안갈티여?

아버지 못 뭐자? 못올나?

바 우 갈티여? 안갈티여?

어머니 조으 아버지. 죽것네!

몽맹이 뭐디 갔나?

아버지 이놈야 못볼것나?

바 우 갈티여? 안갈티여?

아버지 이놈야 못볼것나

어머니 (몽맹이를 들고와서 바우를 쫓다)

아버한테 이게 뭐나

이말을 안 볼려?

바 우 (아버지를 안고 울며)

아이구! 아이구!

뭐째 매려? 뭐째 매려?

혼인을 몰르면 난 어떻게 살어?

죽임이 없으면 난 무슨당계!

~26~

아버지 죄수관 이빨 보타! 사계 농갈탈타!

엄마니 이눔아! 이눔아! 이눔아!

바우 날 죽여봐! 켈! 죽여봐! 켈

차라리 아주 죽여 환관 말타! 켈

아버지, 어머니 바우가 서로 어울려  
별명이를 놀며 싸우는 잔에 응네 미  
를 사람들 끌려든다

어머니 마운 사람을 보고

말세 이 미련한 놈이 아무든 이눔  
중 때 광광계. 스이 아버지 죽이겠  
시더

마운 사람들 싸움을 듣어 말리면서,

노래 // 바우는 좋아서

마운사람들 바우는 좋아서 신이 났건만

큰인을 물론다니

큰일났지 큰일났어

꽃님이 배앗기면

서디기서 물어볼까.

~27~

산마루에 올라가서

바람세력 호소할까.

그래도 설마

큰인이야 물불과구

화족밖은 심방이

꽃님이 기다린다

조목이를 원안금침

바우를 기다린다

바우는 좋겠네

신이 나겠네 신이 나겠네

- 暗 歌 -

~28~

### 第三場

꽃님이네 길 문앞.

시집본이 활짝 열려있다.

꽃님이네 시집가는 저녁: 밤.

길에서 길손을 꼭꼭 시찰하는 오리와고 사립을

안쪽, 꽃님이네 심 할아람에서고 꽃님이 꽃

님이 서거나 그리고 승봉이, 팔고만이, 서은

이, 오죽관이 등이 팔판을 거두려고 있다.

오래 12 함 사시오 함

함판들 (장수, 팔락이 오면이, 칠칠이)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꽃님이네가 어디면고

이산 저산 다 뒤져도

갈길을 모르겠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29~

갈떡은 두더비

꽃님이네가 어디면고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목이 걸린 검둥개야

꽃님이네가 어디면고

이산 저산 다 뒤져도

갈길을 모르겠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사시오

오 목 아줌나! 벌써 함이 오버주!

어머나 오매! 할 피겠네! 아 디는 저게

저게 인으로 못 들어가 있나?

꽃님 후후... 취계 나는 함 오는거 보

면 품의가 난감가?

팔고 헛헛! 아니 글먼, 시집도 가기전에

일러가누 들람가?

(꽃님이 등명스럽게 들어간다)

1300

어머니      그런데 아아 오목단이! 대관할 누가  
누가자 비교 온디냐?

오 목      장수, 활락이 -

수 봉      오경이, 율령이래미!

어머니      어이구며! 취잔디? 동네 활락은 모  
두 뭉쳤네 임?

    사과 합관을 나타낸다. 노래 (12)

    활락 활락 란으로 어울린다.

    공작조롱을 손에 든 장수, 웃김질을  
    덜글레 율령 율령이, 활락이지를 뒤  
    집어쓴 오경이, 활락이가 경잠겨 란을  
    잡혀졌다.

    합관을 뒤를 이어 동네 사람들도 여  
    럿이 따라 나온다. 손에 손에 청사  
    조롱을 들었다. 처가 비우도 뛰이여  
    공연히 안찰 부절 한다

    장 수      (꽃님이 며침 앞에서) '이 길세는 함  
    산 사람이 없잖가? 함이여! 함!

어머니      아이구! 이거 장수 아니디?

    호호 ..... 자 어서 들어올 것이여!  
    코가 있어서 이 덕걸리 뽕새를 못맞는람  
    가?

오 경 이      허허허 하지만 사제는 흥성이 언뽕  
    질!

    율 령 이      (동네 사람에게) 누가 이 함 살 구  
    람 없으리우? 갠살릴자 내 사기 질  
    아버리고 말장게 말여!

    동네사람      그런데 그 함에 붉은 채산, 푸른 채  
    산은 청실홍실에 뒤어 분명리 들어  
    엇기나 타람가?

    활 락      오며! 이 양반이 자다가 기어 나왔  
    다 무슨 뽕 소리여? 뽕 소리가?  
    아니 글뽕 이 름에 공산명뽕이 뽕은  
    종 안람가?

    일뽕 웃음

    순람 팔교란 서운 오목단이 우루 뽕  
    려나와 합관을 하나씩 벌아 갖구 새  
    뽕문 안으로 끌어 들일려고 한다.

~22~

장 수 커보게 활락이. 이 집은 꼬인발 소  
분이네집 아니어?

활 락 헛헛. 워져 아니어? 앓다 순봉이  
네가 아니리 표람가 팔고만이네 겹  
이나버? 앙그리여? 오정아!

오정아 지근 있자! 오매 이 집은 유카나  
유집 오복잔이네 겹이 아니어?  
퀵퀵아 이거 우리가 잘못 들린 거  
아니어?

퀵퀵이 헛헛 이간 발자간 서운이제 짐장제  
비여! 자. 우리 이럴찌 아니라 꽃님  
이네. 집을 갖아 가장께! 이집에선  
역외부리 노오랑구만!

노래 13 함 사시오 함

함꾼들 함 사시오 함 사요  
함 사시오 함 사요  
꽃님이네가 서지면고  
이산 저산 다 뒤저도

~23~

활락을 모르겠네

함 사시오 함 사요

함 사시오 함 사요

술술 꿈꾼이를 빼는 함꾼들을 뒷쪽  
세 갖던 바우가 먹고 나선다.

바 우 감수야! 활락아! 이거 너무 하잖어?

활 락 오매! 이것 좀 보게 여기가 어딘지  
신랑이 발발거리구 기여나와 잠천이랑  
가?

바 우 히히히... 오정아! 퀵퀵아! 내 술환  
관 툭툭리 받아줄것이니제!  
떠떡 시럽은 안으로 들어가 보드라고  
임?

퀵퀵이 아 글썽 술없이 치르는 대사도 갖당  
가? 술을 발랄찌 앓고 임? 함은  
틀리산 말여! 답답한 성령님 심 판  
다고 급하면 떠떡 내 놓을 쫓여!  
(손구락으로 동그래미를 그린다)  
아 이거 모른담가?

~34~

바 우 씨네... 아 글만 진작 알렸었이지!  
 아, 이 장암아두 기분을 언단 말여!  
 (호주머니를 죄다 뒤져서) 자! 반  
 을 컷여!

이와같이 바우가 고전분투를 하고  
 었는동안, 오목이네 패가 서로 머리  
 를 맞대고 무슨 약전을 꾸미고 있다  
 꽃님 이너리에게서 돈을 빌려가지고  
 들어갔다가 비 문지로 나누어 들고  
 나온다.

제법 돈을 켜가 두둑하다 그리고는  
 음봉이가 장수에리 팔포만이가 오정이  
 액제, 서운이가 쥘쥘이에게 돈보 오  
 목단이가 함을 켜 알락이에게 접근하  
 여 간다.

환 락 (바우가 주는 돈을 해어 보면서)  
 에게제... 이걸 겨우 3백원허구, 20  
 원허구, 5원짜리 한알여 1원짜리 서  
 었알! 에게제! 아 요거 쏘개 주면서

~35~

기분을 언단구 한참가?

바 우 아, 강가면 가드 나면 누가 썬씨 커마속  
 에 가주 쥘쥘을 언단까? 수림은 달게  
 할구 보능지여!

장 수 글만 함도 외상이 있참가?  
 쥘 쥘 이 오매! 쥘마 쥘고리 쥘저리가 쥘편쥘  
 이참가?

순 봉 장수야 앓따 (호주머니에 꼭 들어  
 준다.)

팔포만이 오정야 앓따 (호주머니에 꼭 들어  
 준다.)

시 은 쥘쥘야 앓따 (호주머니에 꼭 들어  
 준다.)

오목단이 알락야 앓따 (호주머니에 꼭 들어  
 주든 꼭 붙든다.)

환 락 앓따 쥘안지 시어나 외야지! 이렇개  
 꼭 붙들면 쥘저제 현다나? 아 지깁  
 애가 쥘 덕있을래 이렇제 힘이 강사  
 라나?

~36~

아, 가리광 표개두 쉼어가지 않는지 물어  
당?

왜! 바지 최고 튼튼 몽땅 멍들은  
구나?

이애 순봉, 팔고 막이, 처운이기 활악  
이애직 불려들어서 사립문 쪽으로 모  
두 밀어 넘겨 버우르 인가라 장수  
다. 어, 새 꽃님이도 방문을 들  
림의 친구

노래 14 함 들어기신다

순봉이네 때 꽃님 어머니  
문지방만 넘어서면  
고만이다 고만이야

순봉이네 때 마을 사람 장수네 때 모두  
대문 활짝 열어라  
대문 활짝 열어라

장수네 때 붉은 채단 푸른 채단

~37~

정실 흥실보 묶어서  
백련래르 띠기 살기  
부키영화 카북 카북  
담긴 함이 들어 가신다

순봉이네 때 꽃님 어머니  
문지방만 넘어서면  
고만이다 고만이야

일 동 대문 활짝 열어라  
대문 활짝 열어라

오목란이의 동동함 몽매를 중심으로  
편 순봉이네 때가 함을 길머진 활짝  
이애게 겸증금세를 퍼는 바람에 고만  
함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선고 만다

이때 호주머니에서 돈뽕죄를 꺼내어  
레어보린 장수네 때에 스관이 인다

장 수 아니 건 속이 풍호지 아니어?

오 겹 이 오매! 내건 비문지여!

원 짚 이 혀혀! 이건 북동발 노릇이 있당가?  
도깨바 짐 짜 먹것데 잉?

~32~

( 상을 들고 나와 힘을 받으며 )

어머니    거왕지사 동정은 벌써 끝난 동점이  
          아니할까? 차게 새겨 들이리 물라와  
          서 술잔이나 받을 것이여!

바    우    ( 권좌하 )

          가 환잔히 불러 보더라도 됴!

꽃    님    저가할 마시는 풍사야 내 사랑할 수  
          있지!

노래 15    시름도 많았건만

꽃님 어머니 ( 권소외 ( 禱 ) )

          여보시요.    마들의 여문속에  
          너 말좀 들어 보소  
          이별 죽은애 정삼 죽부외야  
          말자의 허나는 서울로 병손이 귀고  
          환많은 이석상 시름도 많았건만  
          이런 딸 꽃님이 허날 품게 곱게 길

~33~

리    배어

이제 새달 꽃님이가 시집가게 되 오

원    등

          얼차 좋다.    원시구 좋구나

          수심도 많고 시름도 많았건만

          결사는 상관일지 감성현의

          장안이 작은 사커 되었으니

          이제 큰이 경로 가오

          환잔 두잔 권좌 부어

          술잔에 시름머워 수심을람 잊으시오

꽃님어머니

          서울간 딸자의 소식이 감감하야

          정전하늘어 간별이 꽃님이

          오네 가슴에 수심도 많더니

          살랑 살랑 봄바람 베틀가지 하늘

          하늘

~40~

밤나비 잠자는 불꽃을 맞아  
 푸른 시를 푸른 수심 다 펼쳐버리고  
 인자 내할 꽃님이가 시집까지 되었오  
 열 손가락 열서구 줄구나  
 수심도 맑고 시음도 맑았거만  
 바늘이서 가장 예쁜 꽃님이가  
 장생전에 시집까지 되었으니  
 어제 손이 절로 나오  
 환산 두잔 월월 부어  
 슬산에 시를떠어 수심을 잊으시오.

— 附 載 —

~41~

### 第 四 場

꽃님이네 집 안채  
 아람이 동네 사람들이 가득 뭉뚫다.  
 장수대과와 수불이대과도 보이고  
 바우를 마당 가운데 놓고 신랑 매달자  
 고 상화가 범작이다.  
 손에 손에 장과개비며 새끼줄이며 갖가  
 지 면장을 든 마을사람들이 바우를 북  
 관이 놓고 춤으로 어울린다.  
 노래 18. 신랑을 매달자.  
 온 심 몸리함 타고 실버들 꼬리치니  
 네마져 가마라고 시집간당가  
 남 혀은 흥자 삼어나서 마음이 심승심승  
 온 심 신랑을 매달자 어여카 줄을 담겨  
 고은쇠씨 훌쩍가는 신랑을 매달자.  
 온 심 어름이 들리고 도랑물 터지니  
 네마져 가마라고 시집간당가.

~42~

노  
본  
 작은 천녀 심룡 나시 따름이 두근두근  
 신심을 매달자 너여차 줄을 삼켜  
 고은의외 매달자 어머차 줄을 삼켜  
 고은의외 뜰쳐가는 신심을 매달자

환  
 작 (패시) 죽어가 한의이랑  
 동녀사람 (노) 의 장두지라든 신심을  
 죽

동녀사람(A) (패시) 죽어야  
 바 우 (패시) 아구구 ... 이구 ...

장 수 (패시) 술이 새발이랑겨

동녀사람(B) (패시) 술이야

바 우 (패시) 아구구 ... 장모 ... 장모 ... 날  
 취할 것이여 ...

환 환 (패시) 부처미 편어찌겨 술

동녀사람(노) (패시) 부처미 ... 편어찌겨야 ... 술  
 이야 ...

바 우 (패시) 아구구 ... 장모 ... 나를 삼켜  
 일랑겨! 이 나 죽어 뿌리면 시집이구

~43~

배우주 따름이랑 말의!

꽃님이 장모 되어나와 말린다

장 모 (패시) 아 이거 매장간이를 죽이지  
 말의!

리가난 도둑을 함부로 이랑쳐를 다루지  
 말까?

꽃남이는 장모게의를 마구 찢았으려 든  
 주

환 작 (패시) 심룡 죽지 말고 새의서는 저  
 의 꼭 비키말지!

또 되 았잖가?

장 수 (패시-팔러) 신신로 경반 불고기 주  
 경과 시켜 뉘뉘

동녀사람(노) 신신로 경반 불고기 시켜 ...

바 우 아구구 ... 팔랑 팔랑 찢기 찢기 되떡  
 되떡 쟁릴 것이여 ... 나 두번 다서는

장모 안갈 것이여 임?

오 경 (패시) 으며 ... 참말로 영발혀녀!  
 들면! 장모 한판더 팔라도 가슴을 뺏



돈을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거지에게  
준다.  
거지를 안락의 받고 물러간다.  
이제 신랑의 관례지 값을 확인다.

독 으마 - 신랑의 불이 화의왔담기  
수 의 -

같은 조종해신다.  
신랑이 강수등을 신랑의 장으로 들은  
관례를 확인 모두 정호지 시작한다.  
구백은 신랑편 편라고 나머지 부분은  
거주권 한다.

꽃님이 -  
꽃님 왜지? 후후... 아저는 혼났지?  
꽃님 왜지... 신랑이  
꽃님 그림의 서만치 몸가  
꽃님 왜그리어? 오늘부의 내 각서가 아니  
난 할여..!

~47~

노래 18. 꽃님은 내 각서

파 구

꽃님은 내 각서  
크리 관찰것어  
활과 같이 춤자  
담의 안아 춤자  
살살 알아먹고도 싶고  
편스편스 알아먹고두 싶고  
꽃님은 내 각서  
~~오늘부~~부의 내 각서  
~~최상~~의 글도 많은  
카림중이 내 각서

노래 19. 그래두 난 싫어

꽃 남

그래두 난 싫어 처안치 가  
슬로같은 편이 슬송  
그 끝쪽 김그리워  
매캐한 담뱃재 들켜가 아워  
합려주고 웃객글개  
그리지 할어!



도망갔어 ..... 행 .....

어머니 카부로 나오며

이 노릇을 못한다? 관복이  
 우리 꽃님이 밝이여 - 땀 그제 차  
 저도 알고 도망 갔지 뭐냐... 참으로  
 참으로 나쁜 무명살을 느꼈단가?  
 (부부다) 꽃님이! 꽃님이!

꽃님아 .....

각을 사활을 카부를 슬러주는 노래의  
 줄으로 꽃님아 내 집을 지키란다.

노래 20. 저 끝 좀 보소

아름사람들

첫날밤에 석서 놓치고

아랫도리 숨겨 켜고

꽃님이 찾아나선

저 끝 좀 보소 저 끝 좀 보소

*Handwritten mark*

~51~

(女) { 나도 나도 서집 가서  
 첫날밤은 도망쳤어 *Handwritten mark*

(男) { 나도 나도 잠가 가서  
 첫날밤은 울고있다. *Handwritten mark*

해가 저고 달이 저고

눈이 저고 비가 저고

꽃내림아 근고 돌아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꽃님아도 알지 된다.

잡아야지 말 수 있나

헛헛헛... 헛헛헛... 아랫도리 숨

저고

꽃님이 찾아 나선

저 끝 좀 보소 저 끝 좀 보소

사라져가는 마을 사람들 세지 카우

가 안락하이 소리 켜다.

이런 애타면 끝이 있당가?

~42~

파 두    간달로 이런 명랑한 말이 있었지?  
          꽃님이! 꽃님이! 이 뭐냐 갔어?

—  장  幕  —

~43~

### 第 五 場

라무득 집 안재  
전깃달로 부리 몇발 지난 오후 한때  
다.

꽃님이가 스이게 머물른 우며 한편  
음을 아뜨는다

그런데로 꽃님이에게는 시집살이가 그  
런 모양이다.

이런지 바쳐려운 꽃님의 모습

노래 21    시집살이 곱다더니

꽃    님    외양간의 곱속소야  
          시집살이 곱다더니  
          고추보다 더 곱구나  
          시집은저 자를 만대  
          범수커마 불통쳐마  
          눈물씻기 바쁘단다.

소    음메 ----

~44~

꽃님    좋지 좋지 일복소아  
 아름 착한 일복소아  
 니가 내속 아는구나  
 로람이 시어머니  
 잔소리 잔소리에  
 키구 명망 못살겠다  
 시실살이 번리더니  
 고주르다 더 뻔구나

꽃님    일복소아 너두 마담에 나와서 놀구  
 싶으냐?

'소가 꼬리친다, 꽃님 소를 불러 내  
 다가 자갈에서 놀리다가'란다  
 시어머니, 강주리에 빨래집을 가득 받  
 고 나온다. 빨래터에 잤다 온 모담이  
 다. 꽃님이 원정원정 소리서 내리다  
 일침방아를 켜는 다. 강주리를 내리 놓  
 으며

~55~

더미    으이구 집안 망할 것이여! 집안 망  
 돼, 잉... 원의선이 없는 것이야!  
 놀매 갖지 않은 세석씨가 소를 타고  
 노나? 집안 망하겠다. 집안 망해...  
 그럼디 너 손이 천지 되냐?

꽃님    아무것도 아니며  
 더미    뭘 아니며?

꽃님    키며  
 더미    아니 저 활려가 받아 놓은편 가지  
 동담 내나 묶어 묶으면 마관필 권록  
 농사를 짓는구나? 칼날로 속음해 죽  
 겠네 잉

꽃님    내가 우리 천장이 가서 갖다 주면  
 되지 않어라우?

더미    되여. 잔소리 가지 말구 너서 집안두  
 음 치우구 돼지 구정물도 음 권리나  
 먹어라. 그러구 잇다 이진 노이 아  
 버지 바지 저고리 감연디 풀춤 알파  
 하게 해서 팔람히 두드미필 음 허

노모 마아저지 한눈방은 몇간 만났었는지 고리구인  
 갔으면 우리안고이어 노

~58~

꽃님      나과 임

꽃님      거기 나 (꽃님 손을 안 보느냐)

            매 래 ...

꽃님      아, 그냥 자꾸는 말의 감을 부끄를  
            갖다 봐!

            어머니 부으로 나간다.

꽃님      으니 어디 가?

꽃님      오늘밤 '관세암기' 같이 안왔어?

            언감의 가서 소름과 누추한 온 지  
            불려지도 모르니까 일은 일어나 있어  
            부러져 살고 봐!

꽃님      안왔어

꽃님      그러구 제발 믿이 되면 노이 신랑  
            리 가서 부러라 켜며 노이 신랑이  
            잡아 미라? 아, 남이 알면 뭐리구  
            욕을 하겠다? 네느리가 밥 마다 시나  
            되지 않게만 가서 산다구 말라!

꽃님      간 어머니가 좋은 길 어떻게, 빛날 적

~59~

            지두 편 해주구

꽃님      으이구? 저게 불의 편이 들어 머누  
            리 구원을 할람가?

꽃님      부루 ...

꽃님      나 있는데 잠만 할 봐라  
            불의 삼의갓고 피렸의지 말구

꽃님      부루 ...

꽃님      모를줄 알구무 내가 다 알구 있던  
            말라!

            알았지?

꽃님      응. 오매 아버지 오시네

            아버지 들어 온다.

꽃님      아, 뭐! 뭐지 가는 거라?

꽃님      오늘밤 觀世音기 같이 있지 않아 라우  
            신님이 건강해 음 갖다올 것이여

꽃님      잘 다녀와

            어머니 나간다

~58~

꽃 님 아버지 주주... 짐나 왔나?  
 꽃 님 는 왔나.  
 꽃 님 힘든 나한 보편 원이 아만이야 참  
 아 님 아가 일이 크되나?  
 꽃 님 주주... 아버지  
 꽃 님  
 꽃 님  
 꽃 님 다오 미생...  
 꽃 님 음... 아 아버지, 안고 안고...  
 꽃 님 울려 가지... 울림의 다름의 느낌  
 아 님 뭐야... 으... 나... 나... 나...  
 꽃 님 아이 좋아!

아버지 꽃님이와 아주 좋아 하오기  
 를 한다

노래 보... 미워 들렸어요

꽃 님 미워 들렸어요 시집사의 어릴때는  
 무지개 꿈을 안고 꽃가마를 타는래

~59~

꽃이면 낮마라 밤은 밤마라  
 시집나 근소리에 부지개는 사라지고  
 암조쳐 산산조각 부서 지네요  
 이 이 그래서 너덜잡다 시집살이가  
 그럼대로 사노라면 양지가 은다.  
 너는 나의 옛날 우리들의 꿈  
 오순도순 옛날 애기 시름을 잊자.  
 꽃 님  
 님 님  
 (꽃이) 님 님  
 미수름 소나기에 가슴 조이며  
 푸른하늘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  
 주어 끝이 음주권 아버지미 딸제발  
 양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  
 이때 이곳 옛도가집에서 옛장수들이  
 드르코르 때를 지어 불러 나온다.  
 갖가지 관으로 목판을 애고 옛장수들  
 의 가위음감이 흥겹다.  
 꽃 님  
 님 님  
 오며 옆집 옛도가집에서 또 옛장수들  
 이 불러 나오는 가베오 임.





늘은 꽃님이 수놓이 노루삼과 양의  
꽃향기를 원신과 이것의 노루삼 보신  
별의 선과, 파우도 일흔지연자

노래 보신 그리움을 간담자

꽃님 수놓

참고만 모두가 수놓  
참참 수놓 산의산대  
꽃나 보꽃 선할 꽃  
별의 참과 보섯의  
음차꽃과 보섯의  
꽃님 수놓 꽃아  
참참 수놓 (飲服) 수놓 취어  
노루삼을 간담자  
참참 수놓 취어  
참을 들고 초른들의  
수술처럼 취어  
참참 수놓 취어  
그리움을 간담자  
꽃나 보꽃 취어 참대

개나리꽃 선할 꽃  
꽃향기가 취어들고  
꽃향취며 돌아볼가  
춘三月 봄을 보아  
참참 수놓 취어  
그리움을 간담자  
그리움을 간담자

이래 서이더니가 돌아 온다.

바 우 꽃님이 큰별 갔어 임 님이 돌아왔어  
꽃 님 왜? 님이?  
바 우 어서 뒷문으로 드잉가  
이 더 니 아니 이집에 안리 제들이 왔어?  
취어 이 복서라나?  
오류진 (권력서) 꽃님이!  
꽃 님 오매? 난 주웠고만 임!

서이더니 들어오는 것을 파우가 막고  
갔다.

~!!~

나 머 나 아니 죄죄 따우 너는 감승취람 이되  
 버리고 왔나? 영?

따 우 임니 람똥제 온다드니 죄죄 뉘죄 왔나?

나 머 나 (스랄린 따잡도 앓아) 두람 짓들  
 짝는 거나? 뭐야?

꽃님이들 모두 뉘고지킨다.  
 새우장에도 따우 가로 막는다

나 머 나 죄죄 / 아니 죄죄 죄죄 뉘죄 왔나?  
 가?

나 머 나 영신 방금 왔었구마? 아 그라구두  
 집안에서 두람 짓들은 잘 모르고  
 왔었다 람이요 임?

바우가 너머니들 밖으로 슬슬 간다.

~!!~

바 우 임니!

나 머 나 아니 아가 죄죄 이란지 뉘람두 이  
 야산 이랑가?

나 우 임니! 영!

나 머 나 아니 익판 짓과?

시머머니가 남다 익는 바람과 바우  
 언덜랑아들 짝는다.  
 바람에 죄 죄 들머지는 너머니

나 머 나 으이구 느이름이 이켰나?  
 이켰어?

야는 어디 갔나? 어디 슬웠어?  
 딱시루께 놓고 팔린다. / 잘라!  
 슬림 망하는 구나!

살림 하!영!

이년아 나오너라? 나와!

이년 어디가 습쳤나?

오이구 -

— 附 錄 —

### 第六場

꽃님이네 집 안계

모라뵈으로 땀저미가 건 汗통뵈이다

마을 아이들이 들들 들어 대나무 쪽에다 들

프트버리를 실로 매고 미라를 짚아 가느다란

나무를 쪽을 저고 힘집조각으로 대쪽에다 노

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집현 각자

들 손에 들근 각씨들음을 한다

노래 25 들라씨 노래

마을아이들

앞산에는 빨간 꽃요

뒷산에는 노란 꽃요

빨간꽃은 치마 짓고

노란꽃은 저고리 지어

플러어 머리하고

그이따지 술을 걸어

흙가루르 밭을 짓고

~70~

술을들탕 국수 팔아  
 물다시들 설사키자  
 풀다시가 설을 하면  
 망근을 쓴 신랄 일랑  
 곡기 끈지 풀들범서  
 발 주려이 들 다시대

꽃님이가 오리가 병청이 서서 시름  
 깊이 보고 있어 삼지 활산에 섰고  
 있는 꽃님이  
 꽃님이 어머니 밖으로 나가다가 꽃님  
 이의 마조친다

어머니 나나 너 꽃님이 아니냐?

꽃님 (울먹이며) 임나 령.....

어머니 오네, 너 왜 우냐?

시집간지 배질 됐다고 벌써 낄낄 짜  
 고 오느니 말려? 글세!

꽃님 딱 꼬매 왜 먹었다고 시엄니가 어떻

~71~

게 극심인지.

령. 나 도망왔어

어머니 이 노릇을 어쩌면 좋으나

어서 떠먹 시집으루 못 가겠나?

꽃님 밤이 되면 파우가 못살게 글구 령!

임나 나 시집 들볼 수 없으리우?

어머니 뭐?

시집을 들러? 으아구 이변의 팔차

도 사납지. 즈 언니는 서울로 뺄

손이를 안치나. 이젠 시집가서 몇날

도 못되서 쫓겨 오기를 얄나.

참말로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달가임

어니 떠먹 시집으로 못 가겠나?

꽃님 임나.

어머니 난 이제 너 임마도 아니어.

계절이 한번 시집가면 죽으나 사나

시집의 커신이 되어야 하는 법이여

난 모를 원이니께 니 맘대로 해

꽃님 (울적거리다)

은 시아버지 한심한리고 ~~꽃님~~ 언 있었  
근데 나기 돈대치 언 짓이냐?

-22-

어머나  
살기는 왜 울어? 잉?  
아제 이집에는 있을 생각도 말고  
엄 퍼떡 나가진 못하겠냐?  
잠말로 속상해 죽겠의 잉.  
(어머니 화가 나서 나간다)

꽃님  
어디가?  
어머나  
그런 말아 뭐해?  
나쁜 보기싫어 나팔란다.  
꽃님  
엄 나!

꽃님 혼자 굶아 울적거린다  
벽쪽에 소리, 취랑화제 등다.

꽃님  
(혼자말로) 울지  
나도 언니를 따라 서울로 가 볼까?  
잠말로 서울은 요지경 속이라는데  
잉. 행. 그라운 시아버지 한심한치고  
우리 저기 딴딴가?  
노래 26 서울은 요지경 속

꽃님  
서울은 요지경 속이라는데

-23-

전차가 들릴라고 상에 오르고  
로끼리가 남글남글 귀자를 먹고  
밭간풀 파란물예  
사람이 오고가고

서울은 요지경 속이라는데  
북청만 좋으면 추수가 되고  
뛰는놈에 나는놈 황재도 좋고  
서울은 요지경 속이라는데

이때 멀리서 꽃남이를 부르는 바우

바우  
꽃님  
(멀리서) 꽃님아, 꽃님아.  
(혼자말로) 오매,  
구렁이 낚은 바우가 오네. 이제  
잡히면 금작히이 먹힐 것이여 잉.  
퍼떡 도망가야 쓰겠네.

꽃님이 안으로 들어 간다  
바우가 손에 양철통을 두들기며 나온다.

~28~

바 우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나와 만나올래 꽃님이.  
 그런 줄이 밭새도록 김을 지게 따  
 나 보자.

(양철동을 두들기며 들어간다)

바 우 꽃님이 침방로 이게 만나올 것이냐?

(꽃님과 바우의 슬백부짚)

바 우 꽃님이 수완죽은 골 언분라변 떠머  
 나라라 나의 영.

이때 地神밧기 령면이 지나가다  
 꽃님이네 집 마당을 밧기 시각한다  
 커다란 甕을 쓰고 긴 담뱃대를 쭉  
 고 마치 큰 襪式대와 같이 맨 첫  
 머리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土大夫  
 와 八丈夫.

그 뒤에는 향태기 숙여 죽은 썩은

~29~

땡고 나무로 만든 총을 들러면 砲  
手.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의 假面을 쓴  
 밧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포갈  
 을 쓴 사람들이 김. 북. 쟁과외 잡  
 구 등 樂器를 쳐 울리며 꽃님이네  
 집 마당을 밧는다

장수, 활카이, 모쟁이, 쥘쥘이, 수봉이  
 장고만이, 오목단이, 서운이 등등도  
 여기 섞여 있다

노래 27 地神밧기 노래

마을 사람들

이 령시 地神이  
 地神 地神 울리자  
 좋고 좋은 地神이  
 雜鬼雜神은 물 아래로  
 수추萬福은 이 집으로  
 이 집 짓터 大木은

~76~

어느 大木 이 지냈노?  
 松山까지 中에서  
 그중에 한 大木 이 키웠기  
 江蘇서 나는 姊姊  
 슬피 환히 물어다가  
 조선 뭇지 풀었더니  
 한 大木 이 되었구나  
 산 집에 큰 大木 이  
 뿔 집에 딱 大木 이  
 실은 세가지 면장 맘때 불러매고  
 서울 산 山 終南山  
 서울 뿔 山 翠屏山  
 딸이 나면 烈女 가 나오  
 좋고 좋은 지성이  
 雜神은 물 아래로  
 千手 駕龍은 이 집으로  
 (地神 밭기가 관감일 때 개나리 보경  
 을 전 꽃님이가 散面을 쓰고는 슬피

~77~

行列 에 기여든다. 아무도 눈치를 못  
 차린다  
 地神 밭기가 끝나고 行列 사라지면 -  
 꽃님 어머니가 꽃님을 찾아 밖으로  
 들어간다.  
 바우와 함께 장수, 활락이, 오쟁이,  
 칼칼이, 오복단이, 순봉이, 팔포단이,  
 서운이도 남아있다.

어머니 오매, 꽃님이가 어디 갔단가?  
 오매, 이게 뭐야 영?  
 (꽃님이가 송이 죽지에 걸한 줄 서  
 놓은 것을 들고 나오며)  
 어머니 참말로 제집애가, 실성을 뿔나?  
 꽃님이가 서울로 뺑소닐 뿔어.  
 바우 뭐 서울로?  
 풀쳐 주저 앉은 바우, 장수네 뿔  
 순봉이네 때가 꽃님을 찾는 노래를  
 부른다.

-78-

노래 28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장수, 승룡의 음악 8호집

산나물 캐러가면 | 산파들이 밝아지고  
 땅아찌러가면 | 땅아간  밝아지고  
 꽃밭처럼 어딜가나 | 밝음을 가져오면  
 꽃님이 꽃님이  
~~우리 마음의 커다란~~ <sup>꽃님이</sup> 꽃님이 어딜갔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sup>지엄들이</sup>  
 밝은곳과 가면 산들리와 밝아지고 <sup>꽃님이</sup>  
 밝은곳 가면 눈밭이 밝아지고  
 꽃밭처럼 어딜가나 밝음을 가져오면  
 꽃님이 꽃님이  
 우리 마음 커다란 꽃님이 어딜갔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밝은곳, 꽃님이.

— 樂 章 —

-79-

### 第 2 部

會場을 통해서 글썽 불투명한  
 靑과 靑蒼한 線으로 構成된 都會  
 地의 感覺的인 背景이 靑靑한 일  
 류의 네이선의 이미지를 준다. 한편  
 衣裳은 이와 같은 靑靑과 본트라스  
 르를 이루워 灰色을 主調로 한  
 꿈의 喪失感 같은 것을 나타낸다.

第 7 場

서울 騷亂內다.

信号灯이 두어개 서 있는 불빛품 —  
<서울>을 나타내는 현란이 서있다.

막 후가 도착하여 번잡을 이루고 있다.

갓가지 옷차림의 乘客이 오고 가고 —

赤帽가 짐을 나르고 —

빨간 信号灯의 汽笛, 信号灯은 駝背들이 오가고

—

구두뛰이, 꽃피는 少女들 품팔이까지 한몫 겨우  
고 —

이와같은 群衆들의 아우성악 갓가지 機關車의 소  
리를 「에렉트」로 활연시 코믹한 모던·발레의  
群衆가 된다.

꿈을 衰々된 機械化된 人間의 非情한 몸무림  
같은 것 —.

어느덧 群衆속에 섞이어 어리둥절하는 꽃님이

노래 29 서울 서울

群衆의 合唱

라라라라 라라라라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은 반박 반박 오지정숙

잡이 남리고

네온이 반짝이면

화려한 쇼윈도 마다

꿈을 팔고 꿈을 사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男 A (客席을 향해서) 조심하세요. 산사람  
고도 배어간데요!

서울은 반박 반박 오지정숙

街路樹 그늘에

모슬비 들날리던  
 가난한 아베르가  
 사랑을 팔고 사랑을 사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女 A ( households 를 통해서 ) 조심하세요, 잊치마  
 던 수정을 빼앗지조!

서울은 뽕뽕 뽕뽕 요지경속  
 로라디 퇴회애  
 땀수가 부서지면  
 고향은 사람마다  
 人情을 팔고 人情을 사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男 B ( households 를 향하여 ) 조심하세요, 당신 왜

도커트속을  
 서울은 뽕뽕 뽕뽕 요지경속  
 歡樂의 되안길에  
 흐젓이 커지면  
 원승이음을 추며  
 웃음을 팔고 웃음을 사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은 만원이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女 B ( households 를 향해서 ) 조심하세요 /  
 바가지품 쓰세요!

서울은 뽕뽕 뽕뽕 요지경속  
 프랫폼에서  
 汽笛이 들리고가면  
 나그네 가슴마다  
 슬픔을 팔고 슬픔을 사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85-

서들은 만권이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사라지는 群象 — 노래 / 을 부르는  
사이 꽃님의 개나리 보따리를 노리는  
쓰리의 원토마임. 마침내 개나리 보  
따리를 날치기당한 꽃님이 그 들상이  
되어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 —

꽃님 오메? 내 개나리 보따리가? 내  
개나리 보따리가 어디 갔네! 이 말을  
취판디야?

群象 A (살살하게 힐끗 보지만 하고 가버린  
다)

꽃님 여보세요! 내 개나리...

群象 A (살살하게) 바빠요! 바빠!

꽃님 두꺼미 벽을 따지 할말로 이 노릇을  
취판당가?

혼자 보섯이 남아버린 꽃님이

-86-

이슬라니 汽笛의 余韻을 남기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차마퀴 소리가 들린다.

노래 30. 꿈을 찾아 왔건만

꽃님의 獨白

서들은

만약 만약

크지걸 속

통

꿈을 찾아

왔건만

은애 간미

꿈은 없고

통

차도도 도착했고

돈지갑도 도착했고

취미금

해아복합

통

-87-

(승) 참말로

고지경 속이라 .....

참말로

모르겠네 영

이때, 젊은 馱夫가 뒷자루를 비

스듬이 들고 나와 빈 船內를

활기 시작한다.

汽笛소리 구슬뜨게 사라지면서 -

노래 3/ 人生은 쓰레기

젊은 馱夫의 独唱

人生은

쓰레기

시궁창속

쓰레기

생쥐같은

人生이

입글 입글

-88-

맹물면식

우물우물

들어가다

우물우물

들어가 .....

젊은 馱夫가 꽃남이를 보곤 빙글빙글

활을 보낸다.

馱 夫 아가씨! 아가씨는 뭐 의용도 남과

있지?

꽃 남 아가씨! 참말로 죽을 밑에 이런 밑

도 있어라우? 글에 밑도 있든가 백

등고 올라당 .....

馱 夫 음아! 고 암씨같은 떼거리들한테 기

얼굴 당했구먼! (피를 차며) 그런데

서울은 처음인가 보군?

꽃 남 아, 뭐 잔게 재려다 시업니편의 호동났

구 업니편태 가장 추박을 받고보니, 활

더가 있어야 할이지라우!

-77-

馱 夫 지런 / 허허허…… 고립 어디 찾아가  
볼테라도 있나?

꽃 님 언니가 있지라우! 그러지만 아저씨!  
내 개나리, 보따리를 죄죄해 찾지라우?

馱 夫 개나리 보따리? 허허 못찾지, 못찾  
어!

꽃 님 그속에 언니네 주소우 들고 쓸 돈두  
수월봉이 들었는데, 이 노릇을 죄죄해  
라우?

馱 夫 음, 그런데 언니네 집 주소는 건전  
생각이 안떠오르나?

꽃 님 꽃이라드라…… 잠…… 잠…… 음지!  
장충사파드림가 육는다있이라우!

馱 夫 장충사파드라……

듣는 馱夫가 호주머니에서 주실 주실  
떡원짜리 환장을 꺼낸다.  
다시 휘파소리 구슬모계 들려오고 —  
떡원짜리의 주름을 손꾸락으로 피면서  
꽃님에게 준다.

-78-

馱 夫 자, 얼마 안되지만…… 떡씨를 타고  
운전수 아저씨한테 데려다 달래요

꽃 님 오매, 떡씨여?

노래 32. 그래도 어디번가

꽃님이와 듣는 馱夫의 2분합

馱 夫 환단을 팔지 말고  
글쎄 글쎄 가시오

꽃 님 두지개치일  
부들은 꿈

살듯이

가슴속에

품고 왔건만

馱 夫 人 초은 쓰레기

시공창속

쓰레기

시공창에

빠지지 말고

~91~

큰장 큰장 가시오

꽃님  
 그래도  
 이디면가  
 대롱 대롱  
 꽃송이 처럼  
 부른은 꿈이  
 매여 달려  
 있을 것만 같네요

馱夫  
 쓰레기 속에서는  
 생쥐 같은  
 사람만이  
 빙글 빙글  
 맴돌면서  
 우글 우글 거린다오

꽃님  
 아저씨 참말로 교악취락우! 마은례를  
 어떻게 보능당가?  
 아저씨 안녕! —

~92~

馱夫 손뼉리며 어서 가라는데  
 汽笛소리 끝까지 사라지고  
 꽃님이 나간다

그래 33. 人보은 쓰레기

馱夫  
 人보은 쓰레기  
 생쥐 같은 人보이  
 빙글 빙글 돌아간다  
 그러나  
 쓰레기 속에서도  
 잊지말자 인경의 꽃  
 人은 馱夫가 장치를 벌고 들어가면

— 終 幕 —

第八場

장중 아파트.

꽃님이 언니 들림이와 리리가 함께 지내는  
방이 있고 왼쪽 옆에는 씨이와 풀이가 들고  
있는 방.

다른 한쪽으로 街路燈 하나 - .

街路燈에 장중 아파트를 거리키는 광고용 간판  
이 밴스들이 걸렸다.

팔님은 카바레·드림공의 댄서 (3층) - 리  
리 (2층) 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풀이도 카바레·드림공의 밴드·맨 - 지로콘  
축출이다. 씨이는 西園會 건·뎌 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다 하는 샌드위치·맨. 들림이와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디.

마침 햇볕이 - .

구공관을 하나씩 꿰어든 아낙네들의 행렬이  
아파트 앞길로 지나간다.

물저저물 전 아저씨들의 행렬이 거제거름으로

아낙네들과 잇달린다. 여기 쫓가지 行商들이  
오가고 - 이것이 舞蹈場 되는 가운데 - .

드림에서는 피후를 둘러싸고 팔님이네  
관우들이 서있는 모리 카드·플레이블  
하고 있다. 모두 갠싱볼 - .

방에서 풀이 시로콘을 득들기고 있고,  
씨이는 트럭 한쪽 구석 건 나무椅子  
에 앉아 활각시를 건들고 있다. 그  
야성적이 나는 모양이다.

장님의 방에는 웃걸과 쾨장패가 평  
그러나 놓여있고 씨이의 방에는 웃걸  
이가 세워져 있을 뿐.

이 웃걸이네 카우보이 모자와 웃걸고  
리 그리고 은빛 권총이 걸려있다.

카드·플레이블 하는 팔님이네가 센터  
변환한 流行歌劇의 노래를 부르고 있  
다.

어린지. 구슬뜨다.

~26~

노래 34 시골은 마음  
달님이네 친구들의 슬픔

달이 저물면 시골은 마음  
시골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슬비 몰아치는  
취안관을 지달아 본다.

아 구슬피라  
고향을 잃어버린  
외로운 철새처럼

달이 저무는 뒷산길에서  
고독과 함께 지달아 본다.

달이 저물면 허전한 마음  
주먹에 젖어 눈물에 젖어  
안개비 몰아치는  
취안관을 뒤편에 본다.

아 구슬피라  
고향을 잃어버린  
외로운 손길처럼

~26~

달이 저무는 뒷산길에서  
그림자와 함께 뒤편에 본다.

노래가 끝나자 街頭燈에 불이 켜진  
다.

관 서A 아미나 벌써 街路燈이 켜졌다! 이  
제 고안들 가자!

관 서B 고안 가자구? (비웃고 지랄) 오, 노  
를사 사타저고 가로등이 켜질 땐  
결혼은 관세들이네! 너희들 간곳이  
어디에보?

관 서C 야야! 시시렁 소리 듣지 망구 발  
리 가자무 들근시간이야 들근시간.

관 서A 밤이면 밤따다 떠어나는 꽃들의 전  
술은 들근시간……

관 서B 토포 간소리를 맡구 서서들 가자구!  
야! 달님아! 우리두 (화장)나 화자!

관 서C 그래!

관 서A 그름 바이! 바이! 관님이. 이따 봐!

달님. 음 잘가!

달님이 친구를 나간다.

달님이가永이 있는 곳으로 간다.

리라는 화장을 시작하고 —

달님 영이, 혼자서 뭘 만들구 있어?

永 음? 리리... 이거. 플라씨야,

에브리?

달님 어머니. 정말 예쁘네!

永 어렸을 때 몸이 되며 마을 계구장이

플과 플라씨를 만들어 놓았지...

달님 나도 고향에선 플라씨 슬음을 곱할

려곤 했었어.

永이가 시로폰으로 플라씨 노래를 리

기 시작한다.

植 리리 너 이런 노래 아냐?

어느덧 植, 永과 함께 달님, 리리도

플라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永, 달님, 植, 리리도 함께 리

리와 춤을 춘다.

노래 永 플라씨 노래

永, 달님, 植, 리리도 함께 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길 등 하하하 .....

꽃님아! 내가 달님에게 바라는 것  
처럼 이 꽃님이 (꽃자시를 달님에게  
준다)

소박한 사랑이야!

말글을 부리는 달님 꽃자시를 가슴에  
품는다. 밖으로 나가는 영이-

그때 街路邊 밑으로 꽃님이가 무리번  
거리며 나온다.

건반 자림의 꽃자시를 보고 들리는 꽃  
님이.

꽃님 으매? 이건 또 뭐며 잠잠로 치안과  
비 영!

永 (웃으면서 권총을 겨누며) 흔들었!

꽃님 (걸려서 번쩍 손을 든다) 아려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라우! 벌써  
서울벽에서 몽땅 털렸잖게.

永 하하하... 서울이 처음이나 보군 그려.  
여기가 어떤지 알고 아상거리지?

꽃님 강릉사파르기 여기 아래라우 거기 권  
보상대해 써 있는디!

永 그대 누를 찾아왔지?

꽃님 우리 언니유. 할님이르고. 왜 등  
회수다유는 벗쟁이 언니디 너가 할  
조디면!

永 큰 돈사 다니는 할님이...? 아려서  
이름이 뭐지?

꽃님 사 딸이유우? 잠잠로 별의 귀 듣서  
영? 배 이름은 꽃님이지유우!

永 꽃님이? 애 니 저기 품착하고 서  
있어유. 팔았지? 흥락이면 안돼!  
꽃님이 손을 특제 품착잡는다.  
사파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永

永 에 할님이 일했다.

꽃님 이니 왜? -

永 서울서 꽃님이리는 니 품선이 왔어  
큰회사 다니는 언니 찾아왔쟁제!

꽃님    꽃이 꽃님이냐? 이걸을 어찌나! 애!  
 괴라야! 발리 발리 발음 지워!  
 꽃님은 내가 카바레 연서리는 걸  
 몰라!

꽃님은 꽃님이 마주하려 밖으로 나  
 간다.

덜덜덜덜덜 발음 지우는 괴라

꽃님    언니!  
 꽃님    꽃님이! —

얼짜 건는다. 꽃님은 두손을 든채  
 다.

꽃님    아니 더 귀 손을 들고 있냐?  
 꽃님    앗따. 총을 드려대고는인. 손을 들라  
 고 허릴래... 인자 권총이?

꽃님    호호호... 열이가 작안을 뵈냐!

꽃님    작년? 그럼 언니 그 사람을 알아?

꽃님    응. 잘 알아!

꽃님    오매! 언니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 임!

꽃님    썬! 이러구 있지 말구 안으로 들어  
 가자! 어서 —

안으로 들어가는 꽃님이와 꽃님의  
 웃어울 볼 꽃님은 안을볼 때 눈  
 물을 잔뜩 흘린다.

꽃    한동안... 관중아, 이걸 알아  
 가!

관중을 소리 보이는 속이 변함이다.

꽃    우    호호호... 아저씨! 잠깐도 아까는  
 죽는 중. 알고 기권을 한번 했어라  
 우! 잠깐도 뛰자면 그럴 장난을? —

꽃    우    하하하...

꽃    우    그럼네 꽃님이 집에 무슨 일이려두  
 생겼냐?

꽃    우    언니! 나 말이지! (사이) 시집 갔어!

꽃님 뭐? 시집을 사니 비가 벌써 시집을?  
 꽃님 산편 없자 감성편네 바우되구!  
 꽃님 호호호 그림 그 바우가 바로  
 꽃님 그런디 시집이나 뭐거나 사나운지 달  
 이여. 나 도망왔어!  
 꽃님 아니 그림? -  
 꽃님 언니 나무 언니 다니는 큰 회사에  
 뭐지 좀 지켜봐 있?  
 꽃님 회사에 취직을? (작갑한 심정으로)  
 꽃님아 .....  
 꽃님 (천진하게) 응응? -

노래 36 꿈을 찾아서

꽃님의 1인창과 달님 외라. 3. 4호 4호

꽃님 꿈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물려들지만  
 서늘은 무서운 오지경속

꽃님 그래도  
 두들둑둑 모래라도 있고 있고  
 불꽃을 불꽃으로 타고 싶은걸  
 꽃님아 우리도 꿈을 찾아  
 개사리 보살지고  
 시냇물 따라 환호함  
 온갖 장미 꿈은 하고  
 꽃구름 피워볼  
 바람이 내 시냇가엔, 향긋한데 시냇가엔  
 꽃님아  
 방울 떨어 내시려라 하고 있고  
 달강달강 별차도 타고 싶은걸  
 달님아 그러면 저서 여섯  
 로끼리 구경하고  
 출경차 뽕진목마  
 어서어서 따보로  
 바우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고향으로  
 열복스카 기다리는  
 고향으로 고향으로  
 저서 저서 몰아가라,  
 꽃님 뭉! 언니 .....

— 暗 帳 —

### 第九場

장중 아미트.

아침. 求勤時間으로 거리가 붐빈다.  
自己를 喪失한 것 같은 現象化 된 群  
女群衆 (모두 똑같은 帽子와 똑 같은  
옷에 똑같은 半假面을 쓰고 있다) 의  
음. 갖가지 쿠치온이여 오무라기오라  
등 거리의 騒음이 가시는 가운데 —

노래 37 RUSH RUSH RUSH

#### 群衆의 合唱

아차하면 좋겠다  
되자하면 못된다.  
人生은 急行列車  
이서 가자 이서 가자  
Go STOP Go STOP  
RUSH RUSH RUSH

(음)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꽃이랑  
Go STOP Go STOP  
RUSH RUSH RUSH

(음)

(사오한준) 음을 퍼쳐  
하루살이 자음 잇는  
너도 나도 직량한  
살리리런, 살리리런  
Go STOP Go STOP  
RUSH RUSH RUSH

(음)

이서가자 지각한다  
지각하면 목아끼다.  
너도 나도 몰살한

~107~  
 설리리면 설리리면  
 Go STOP Go STOP  
 RUSH, RUSH RUSH

群衆 사라지고 -  
 드와 椅子에 앉아 강박며 천공을 손  
 쥘 두고 있는 永,  
 花님과 리라, 오이스, 경차림으로 나설  
 각.

꽃님  
 꽃님아, 나도 출근해야겠다. 오늘 밤  
 늦게 돌아올지도 몰라.

永  
 출근? 좋아! 그렇지! 출근이지!  
 리라도 함께 출근인가?

손을 즐기는 花님과 리라

꽃님  
 (방문을 모른채) 언니 빨리 돌아와  
 야! 임!

~108~  
 花님  
 꽃님  
 리라  
 꽃님  
 永  
 花님  
 꽃님  
 永  
 花님  
 꽃님  
 永  
 花님  
 꽃님  
 永

그럼, 셋과! 이긴 네 용돈  
 호도 ... 이거 뭐라고 생각했어?  
 나도 좀 봐? (외부순락)  
 그와! 괜찮아!  
 꽃님아,  
 응?  
 빨리 나가서 리라, 봤잖아?  
 응.  
 그럼 갔다올지 (신문이 순천출판사)  
 잘 다녀와. 언니! 그와의 이거!  
 왜 그와? 언니!

永  
 응!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꽃님 이상하구는 듯 고개를 가웃들.  
 흥흥겉음으로 나가는 花님과 리라  
 웃어도 최무뚱판건다.

꽃님  
 永  
 꽃님

이치익!  
 응!  
 이치익은 뭐래 출근 안리라우?



폼서처럼 밟어 가면  
 시들의 멧쟁이가  
 환호를 지끈 잡고  
 눈짓을 환합니다  
 나는 시들의 멧쟁이 아저씨  
 짜만 모자 비스듬이  
 가도수를 밟아 가면  
 시들의 멧쟁이가  
 힘손을 끈들면서  
 손짓을 환합니다

꽃님 (웃는다)  
 永 대야네 새수를 하기 시작한다

꽃님 아저씨!  
 永 음?  
 꽃님 책관필 시를 서가가 제일 잘 보이는  
 처가 어디 지라우?  
 永 오거야 남산 꼭대기 八角亭이지!

꽃님 八角亭이란 커다란 산과 같은 돌산과  
 문 좌우 올라 가는 다가 아너라우?  
 永 왔잖아!  
 꽃님 아저씨!  
 永 음,  
 永 이관필 시를 서가가 제일 잘 보이는  
 처가 어디 지라우?  
 永 오거야 남산 꼭대기 八角亭이지!  
 永 八角亭이란 커다란 산과 같은 돌산과  
 문 좌우 올라 가는 다가 아너라우?  
 永 왔잖아!  
 꽃님 아저씨!  
 永 음,  
 永 나 그 커이름, 나와 함께 관현 리모  
 고 뵈어라우! 八角亭이  
 아저씨 밟아라우?  
 永 파리 밟지는 않지만 --- 권희 권  
 도 드르잖아? 산니 팔리목 아파  
 나루지 밟구 더기 있는기 놀아!

왔는지? 아가씨!

永 세수 끼치고 댕아를 들고 들어 간다.

그사이 꽃님은 살짝 빠져 나간다.

꽃이 돌아 와서 —

永 아가씨? 이 아가씨가? 꽃님아!  
꽃님아! 헛참! 이거 근일 거겠는  
걸!

꽃이 카우보이 모자며 권총을 차기  
시작한다.

이때 카우가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노래 부르며 街路(스트리트)로 나간다.  
금줄 모를 들리치고 험하게 쉼코리에  
권총을 쏘를 쏜다. 손에 커다란 덕  
보다리를 들었다.

카 우 (객석을 향해) 함부로 시운 사람들

~114~

원심도 그닥 뭐리 입? 짐을 들고  
보러 온순도순 가르쳐. 무지는 알고  
고개만 거둬가리며 「저리 가라」 — 이  
것이 함부로 감동 나쁘트랑가 하는 짐  
이 카도 이 근회라는디 듣지? 연차  
꽃났다! 헛! 이렇게 헛은일 가리니?  
꽃님아! 꽃님아! —

카우보이 좌림을 다한 꽃이가 드림의  
상림에서 함박을 신다 꽃님이 부르는  
노래를 들린다.

永 누가 왔나? 누구요?

듣다 나오는 바우. 꽃이를 보고 감격  
한다. 상관음을 허리에 찬 꽃이의  
모습이 낯선 것이다.  
보다리를 떨어뜨리며 헛짐을 쳐다가  
검정방아를 짚는다.

카 우 그거 조... 짐이 아더라우? 레레...



第十場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八月亭  
客席을 향해서 觀光用望遠鏡이 있다.  
서울사람 몇몇이 望遠鏡을 하나씩 드러  
다 보며 -

노래 39. 빙글 빙글 맴돌다

志清호 사람의 独唱

일레  
딱정벌레 기어가듯  
자동차 굴러가듯

서울사람들의 合唱 (후렴이 된다)

빙글 빙글 맴돌아 주  
반질거리는 서울양반  
다람쥐 쳄바퀴 돌듯  
현일없이 팔도 도네유

志清호 사람의 独唱

오메  
달걀달걀 환구지가  
차에 치어 펴졌담배  
(후렴) 빙글 빙글 맴돌아  
반질거리는 서울양반  
다람쥐 쳄바퀴 돌듯  
현일없이 팔도 도네유

志清호 사람의 独唱

왔다  
개미치랄 우글우글  
사람종자도 앉테이  
(후렴) 빙글 빙글 맴돌아  
반질거리는 서울양반  
다람쥐 쳄바퀴 돌듯  
현일없이 팔도 도네유

成鏡道사람의 独唱

실루

비지께 세켜논듯

꽃은 짐두 잃숨메

(후렴) 빙글 빙글 맵글 도구다

반질거리는 서울양반

다람켜 체마켜 들듯

활질없이 잘도 도구다

平安道사람의 独唱

아니 매사니

집이 많으면 뭇하관

드나라지 글프 카누나야

(후렴) 빙글 빙글 맵도누나

반질거리는 서울양반

다람켜 체마켜 들듯

활질 없이 잘도 도누나

이때 꽃님이 나타난다. 제법 세련된

~120~

서울 아가씨의 총내를 내면서 견지만  
서두르기 덕이 없다

꽃 시 (꽃남이를 보고) 역시 서울 가시께  
라 애근하고야!  
이 말에 꽃과 슬깃하여 꽃남이는 더  
욱 서울가주세 자람 새참니를 뵈어

꽃 시  
후 사  
주 사  
가 스고관과 이쁘게 생겼어우!  
거 이치한 스키를 그만유우 덕원도로  
가 도라유우! 말레!

사투리를 나간다

꽃남이는 신이 났다

꽃 남 (客席은 捧腹서) 호호... 웃이 날개라  
드니만 날로구 서울속시작네! 오매  
이런 또 뭐람카? <강원정을 드러다 본다>  
오매 사람도 많기도 허비임. 그런데  
사람은 이리도 많은디 내 밭은 취매  
어다지도 <허런 허람카?>

이때 — 본상의 젊은 아베르가 권형  
적인 서울 연인들의 젊은 세계를 동  
기며 지나친다.

꽃님 (말을 돌리며)  
오메나! 참말로?  
새소리 들린다

꽃님 오메? 그런데 서울에서도 새가 다  
주네잉?  
취재 삼삼하니 볼썽 시골 생각이 치  
밀어 오른당가?

노래 40! 지금쯤은 무엇을 할까.

꽃님의 絃譜

치근치근 꽃이 다니며  
꽃살찌 들림 바구  
지금쯤은 무엇을 할까.  
일룩일룩 일룩소도

지금쯤은 무엇을 할까.  
돌처럼 딱오르던  
뒷동산에 건달려도  
지금쯤은 시골갔을까  
오복연이 근분이  
석은이 딸고만이  
삼덕애 돈어 갔아  
발레반장이 휘두르며  
참작이 오케이  
삼수 힘철이  
마을의 어승아들파  
오른도 새음 하겠지.  
오두 도두 보고싶네  
참말로 보고싶네  
바우도 지금쯤은  
일룩소에 합지락을 권고서  
참람들도 잘람 잘람  
장리에나 갔을까  
참살결은 무미신람

이렇게 헤어지니  
저절로 보고싶고 — 그리켜지네

꽃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하  
나씩 들춰 감피들이 나타나 손근위  
꽃님이를 들리한다  
서로 취와함을 부는 감피들

꽃님 오매? 무슨 것들이람가?  
장 A 뭐?  
왕방음도 감람감람  
장리에나 갓들피

일 동 헛하하 .....  
장 B 야 야. 그것모다두 말이야.  
참살같은 우리 신랄  
이렇게 헤어지니  
저절로 보고싶고 그리켜지네

일 동 헛하하 .....  
꽃님 참달로 대카리에 되도록 안아온 것들이

대관할 위해 이지달이당가? 지할이?  
장 A 헛하하 ..... 대카리에 되도록 안아온 것들이  
이거 정말 웃겨주는데! 아직도 람  
도 안봄은 헛범아리 같은게 ..... 뭐야?  
참살같은 우리신랄? 하하 ....

장 B 요말 그냥 기쁨에 취서 적을까?  
꽃님 못이 뭐야? 기쁨에 취져먹어?

고만 꽃님이가 장 B의 따위를 추려  
친다.  
감피들과 꽃님이가 싸움하는 판은마님  
미리 해문리기도 하고 헛이든 하이행  
찍에 일어났기도 하고 —

한손에 맥도마리들 든 바우와 카우보  
이 차림의 죽이 뛰어들다.

바 우 꽃님아!

꽃님 바우아!

바 우 아니 그런디 이 도둑쟁이 같은 놈들이?  
 장 C 왜 뭐야? —

바우가 벌다 두놈을 밀어 팽가친다  
 엉덩방이를 찍는 장패들

바 우 적어두 이 장갑이가 느덜 따키 뒷세  
 흰어구 기 죽을중 알아? 행!

꽃님도 신이났다

장 C 어어? 손잡이 럼 탄빈 황소 같은,  
 좋아! —

永이도 환우들을 멋지게 친다

장 B 아니 이 치 치가?

장 A 흥! 이거 스타일 완전히 꾸기느군!

바 우 꽃님이 참말로 보고싶었어잉! 이 녀  
 석들을 그날? —

또한놈 밀어 팽가치는 바우

장 C 아아니? 이게? —

도망가는 장패들

바우, 꽃님을 열사 안는다

바 우 어디 마친데 없나?

꽃 님 (안긴채 고개를 끄덕인다)

바 우 오매? 꽃님이! 해해해 니라, 내 몸이

이렇게 리스꽃이 안기다니? 해해해...

내 전자 할듯 난감해? 요절 취할것이  
 야? 해해.....

꽃 님 (버린간 수집어서 밀치고 나온다)

바 우 오매? 워짜 군 이타는지여? 자 불  
 어와! (손 내밀며)

재물이면 원근 더 싸들어보란 말이!

백은더구 누가 또 농성을 할지? 자! —  
 나지 사기 재물이 묻었어. <sup>안감</sup>

꽃 님 지! 누가, ~~이~~ 이쳐서 그런중 알아?

영이 아리씨든 모는데.....

바 우 아, 해해해.....



부지개빛 고은 사람

달룩소가 기다리는

요양으로 돌아가자

꽃님 꿈다라 철새처럼

낯선 땅을 찾았건만

거리마야 오지점속

시끄럽게 돌아갈뿐

위천한 이마음

어필줄을 붙잡는다

꽃, 바... 사랑 사랑 등근 사랑

부지개빛 고은 사람,

달룩소가 기다리는

요양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포옹하는 꽃님이와 바우

永이는 분야에서 손구락으로 권총반 돌

리고 있다

永이를 본 꽃님이가 —

꽃님 오백 미안하여! 아저씨! 바우야

바우 음?

꽃님 이 아저씨 말이야, 우리 인니하구.....

바우 인니하구?

꽃님 우리 인니하구, 딱딱강하는 사미여!

바우 아니-글면? 꽃님이 원부일 사람 아

니어? 그럴 형식으로 인사를 나누어

야지!

정중하게 인사하는 바우, 永 담환한다

-131-

바 누 그런데 왜. 왜. 화를 내진 말아라우!  
 임? 그런 웃 입구 저리루 짜다니는  
 액류구 본회사 다니는 꽃님이 언니.  
 학구는 삼안 생라해두 짝이 어울리지  
 앓을것 같담 제?

永 그런다면 기장 알게 될거 내 떨어놓고  
 할라지!  
 꽃님이 언니는 큰 회사에 다니고 있  
 지않어. 언니는 ..... 언니는 .....

카바레 댄서야!

꽃 님 꽃이? 카바레 댄서?

永 술을 가지고 흥을 주는 꽃이지!

꽃 님 참말로 오랜 거짓말도 아를것네!

-132-

永 못말렸거든 나중에 나하구 가와 어차  
 의 말 들리겄.....

꽃 님 ( 비록 소리친다 ) 그정 심패러우!

글쎄 언니루 식물부 배리가야 하지라  
 우! 참말로 식물은 오직할 죽어갈수있  
 란!

바 누 희장은 술의 언니한테 가보더라구!

( 손을 잡고 퇴장 )

— 瑣 數 —

第十一場

카바레, 드라글,  
 술병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카운터안에  
 서 술잔을 뒤고 있는 바텐.  
 한쪽 옆에 박스가 있고 카바레 댄서들  
 이 떠리는 회장을 교차기도 하고 떠  
 리는 카드 곳을 치기도 하는데 이것  
 이 잠시 된다.  
 모두 떠리며 앞가슴에 커다란 흉목표  
 들을 달고 있다.  
 다른 한쪽으로 조그만 스테이지가 바  
 련되어 있고 첼리와 밴드맨 서너명이  
 악기를 쥘고 있다.  
 兩府道前의 어딘지 무르한 분위기가  
 감도는 카운터 -

노래 112. 리수아비 인생살이

카바레, 댄서들의 합창

이름이 반짝이고  
 인생살이 흥남이면  
 술병이 즐비,  
 박스며 박스며  
 떠어나는 꽃이 피듯  
 꽃님이 음부있는  
 프랫등 춤사  
 관음 보내고  
 승리를 보내고 아  
 <  
 춤으로만 불피우는  
 리수아비 인생살이  
 물어라 색소폰아  
 나는 리수아비  
 수도 리수아비  
 춤된 모습은 어찌로 왔나  
 >  
 街路에서 반짝이고  
 사계미 흥남이면

~135~

시골에 왔어,  
 (밤이면 밤마다  
 피어나는 꽃이라)  
 댕구멍이 울부짖는  
 강물에서  
 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아~  
 하  
 꽃동로만 불리우는  
 꼭두각시, 인생살이  
 둘러라 시로프야  
 나는 꼭두각시  
 너도 꼭두각시  
 참된 내 모습은 어디로 갔나,  
 이때 꽃님, 바우, 씨이 나타나다  
 걸작물라는 꽃님이 - 두리번, 저리눈,  
 바우  
 꽃님 언니

~136~

꽃님 아니 네가 석기 석기?  
 바우 (탈집어제) 헛소리... . 추탈로 소의  
 건만이어 임. (두리번 저리눈) 그것  
 참 헛소리야 임.  
 꽃님 언니 우리 함께 시골로 내려가야 쓸  
 것이지. 언니 참말로 이게 헛소리  
 그 무엇이람?  
 꽃님 꽃님이! (흐느껴 운다)  
 씨이 꽃님이 우리 함께 시골로 내려가자.  
 저기를 삼실된 꼭두각시들... . 꿈을  
 잃어버린 허수아비... . 꽃님이 어서  
 그 번초라지를 떼어버려. 나도 샌드  
 너의 시골음에서 벗어나야겠어! 잃어  
 버린 참된 나를 찾아야겠다. 꽃님이,  
 씨이!  
 이때 바음이 들어선다 뚝뚝하고 맑은  
 스투운 모습이야.  
 씨이 (바우를 보며) 아니? 석기가 석기?

~137~

알고 이런 촌극 같은 험바지가 다 기  
어들어와 어정거리는 사야? 아니?  
바 우 꽃이 뭐짜? 촌극 같은 험바지? 캄발로  
요계 토실토실하니 밧뻬지 뻬지로 쟁  
져 갖곤 사람한번 웃겨보네!  
바 람 (달님에게) 야, 니 마유대루 시골로  
내려가? 날 뵈로알고 수작들이나 언?  
달 님 언 니!  
바 우 헛헛. 캄발로 뵈로 말건 뵈로 안광  
가? 토실토실한 밧뻬지가 아니면 더  
룩더룩한... 저 뵈리드라... 울지  
거 배쿠샤씨 뵈우샤.  
바 람 아니. 이녀석이.  
바 우 뭐짜. 자나아 대장부 안에서 이게 큰  
삿대질이야 삿대질이?  
바 람 뭐야 (달님에게) 야 너 캄발 내 밧  
관하라! 쵸 사람이 분통어 퍼져서  
어디 살겠나 말야! 캄장이되오 게  
밧을 갖는다면 내 뵈기 어뵈가는 밧

~138~

한판 말야!  
바 람 뵈관간 어떻게...  
바 람 하나 돈이 어디서 뵈관간에 쟁물쳐  
뵈 갖는말디까? 가장원처럼 퍼리진  
말디까?  
바 람 저나와 뵈순돈두 하나면서  
뵈가 캄광할 뵈이 사나!  
바 람...  
바 람 뵈금과 그외기 암사두 내밧어 걱정  
뵈어 캄뵈 돈을 금어왔었다.  
선원지는 조디야 할 밧이니까.  
도케르에서 도장코 쵸찌 예금통장을  
뵈내 주는 차이.  
통장을 뵈어오는 마금.  
바 람 흥! 이런 뵈도 상뵈  
뵈 람 (뵈이에게) 언 니.  
바 람 뵈금야. (호노킨다)  
바 우 나도 캄진게 있으라우 서술선 꽃님

~139~

이를 찾으면 한번 멋지게 놀아 불러  
구 품쳐온 건디. 감각만 거대될 것이여  
임.

피지를 해치고는 배에다 들들 마른  
보자기를 그네어 보게기를 쓴다. 다시  
강호지에 뽕뽕 식용은 것을 틀어 돈  
뽕치를 썬다.

후지되어 황하고 놓으며—

바 우 이거면 편잖아? 모자라면 우리집 가  
장 따라 오랑께. 이래되도 강선원네  
장강압기라면 마을에선 큰 부자관 말  
여!

외 라 나도 추천계 좀 있어!

후지되어 돈을 내놓는다

- 단 서 A 나도 있어
- B 나도
- c 여기도 있어

~140~

백드백사 나도 얼마 함되지만  
철 이 옷이 잘 생각했네

노래 43 돈 돈 돈 돈

관 설 돈  
관 조 돈  
관 이 돈  
관 리 돈

순 돈 돈으로 무엇이든 산다지만  
돈으로 갈수 없는 인정의 나라  
발판나리 천광빛을 쬐을 수 있는 나라.  
돈  
돈  
돈  
돈  
돈으로 형제하면 돈에 망하고  
돈으로 방한 사람 계도 안들. 본국  
돈으로 지세말고 인정에 눈을 뜨라.

우리는 이제부터 인정에 산다.

후루에 돈이 수목하게 싸인다  
꽃김이를 안고 흐느끼는 딸님이

꽃 님 인 니  
할 님 꽃님아.

1) 아당

노래 고향을 등지고

할 님 고향을 등지고 무지개 따라  
찾아온 서울은 가면의 거리  
아리 속고 지리 쫓겨 구멍 뚫린 가슴  
더는 떠리에 찾아온 외환세연라

꽃 님 고향을 등지고 찾아온 서울  
무서운 가면의 그 밑바닥엔  
서정시 샘물이 흐르고 있었네  
언니야 그 밤을 길러 갑시다.

2) 아당

흔 헌 서울은 파노라마 돌고 도는 곳  
그리나 그근하고 꿈은 깃드려  
우리는 크라쳐고 카만히기만  
피지를 받고서서 내산에 산다.

— 附 錄 —

第十二場

제1場과 같음.

오샘이, 장수, 쫄쫄이, 뽕카이등 마을  
마을에들이 할지를 따고 있고 -  
심물리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순봉이,  
팔고말이, 서운이등 마을 처녀들 -

②

그때 45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장수 순봉이네할와 승평

나들거리 가면 손과 돌이 밝아지고  
밤아찌러 가면 방앗간이 밝아지고  
햇살처럼 어릴거나 밝음을 가져오는  
꽃님이 꽃님이  
우리 마을 커여운 꽃님이 어릴렀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빨래리러 가면 심물리가 밝아지고

~100~

김배려 가면 밝이랑 밝아지고  
달빛처럼 어릴거나 밝음을 가져오는  
꽃님이 꽃님이  
우리 마을 커여운 꽃님이 어릴렀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장	수	꽃님이네 마을을 갔다온대 할 것을 자 할라
순	봉	무엇 들은이가 없으니 마을이 밝 은 형은것 알라지!
승	평	승평도 심삼한계 온 마을이 쌀쌀하 서 못견디겠고만!
장	수	꽃님이 뒤꽃이간 바우는 또 쫄쫄이 꽃랑가?
순	봉	식물은 눈앞이 빙빙 돈다는디 바우 보노 원래가 쫄쫄맞아 걸이구 간 걸렸는지 모르겠어 암.
오	경	오메 지는 쫄쫄이가 아년가 네?
장	수	꽃이 뭐야? 쫄쫄이야 이버지가 지

